2009 03.11 No.02(통권 103호)
http://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경호관

가뭄에 목 타는 태백·정선을 가다

공감인터뷰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女風堂堂

'한국의 CSI' 소장 등 불굴의 여장부들

힘내라 농어촌!

고령농업인의 인생이 활짝

경영이양보조금 받으시고 노후를 즐기십시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급단가

75세까지 매월 25만원/ha(연300만원/ha)

▶연령

65세 이상 74세 이하 농업인
(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

▶대상농지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 · 답 · 과수원 등

▶영농경력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지원조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0세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 매입 · 임대 위탁 시 연금형태의 생활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여자라서 행복해요!" 한때 유행하던 광고문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추구해왔던 것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그래서 모든 여성과 남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정계에 더 많이 진출해 여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후보할당제가 운영되고 있고, 군복무가산점제 위헌 판정으로 여성들이 취업 등에서 군가산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또한 더욱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 등이 개선됐고, 호주제 폐지로 양성평등의 가족문화가 조성되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처럼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으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한부모 엄마는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기에도 벅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38%, 외무고시 65.7%, 행정고시 51.2% 돌파(2008년)', '최초의 대한민국 우주인 이소연', '피겨 여왕 김연아.' 이들이야말로 여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분명 여성이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역량을 가진 몇몇 여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노력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천착하여 우리의 딸이, 옆집 아줌마가, 내 학생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올해도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성, 당신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입니다! 남성들이여, 함께합시다! G

여성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1982~2008년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2003~2004년 한국여성학회 회장
2006~2008년 (사)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장
200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CONTENTS

Weekly _ 2009. 3. 11 _ No.2(통권 103호)

女性天下之大本

세상을 여성이 바꾼다

3월 8일 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에는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우리 정부도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여성 스스로에겐
희망의 기회가, 가정에는 행복을 다지는 기틀이 되기를 기원한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58

42

알림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발행일 2009.3.11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주)삼화인쇄 **배포문의** 02-3704-9992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바로잡습니다
2009년 3월 4일자로 발행된 'Weekly 공감' No. 1(통권 102호) 27쪽 우측 하단의 내용 중 "올해에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려 84506억원을 지원한다" 부분의 '84506억원'을 '8456억원'으로 바로잡습니다.

通하라!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바다 위를 길게 가르는 한 줄기 선(線), 바람을 닮았다.
수억 년 떨어져 지낸 두 뭍이 하나가 되었다. 기적이다.
오작교도 이렇듯 장엄하진 않았으리라.
상상하라, 도전하라, 꿈은 이뤄진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파도가 앞을 막으면 잠시 돌아가면 될 뿐.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인천대교는 인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사장교다.
전체 길이가 12.34km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지난 2월 27일 마지막 상판이 연결된 인천대교는 오는 10월에 완공된다.

사진 · 조영철 기자 / 글 · 최호열 기자

Canon EOS-1 Ds Mark II EF 300mm F13 1/200초. 인천대교.

“3월 위기설 과장됐다”

외신 호들갑에 경제전문가들 “한국 외화유동성 리스크 크지 않다”

지난해 한동안 ‘9월 위기설’로 뒤숭숭했다면, 올해는 ‘3월 위기설’로 시끄럽다. 3월 위기설은 일본 기업과 금융사들이 결산 마감인 3월 말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금을 대거 회수하는 데다 외화차입금 상환액이 3월에 몰리면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게 핵심이다. 위기설을 띄우는 데는 외신들이 한몫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한국경제 위험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가 위기를 은폐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엔화 차입금 3월 만기액 걱정할 수준 안돼

3월 위기설이 나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자금의 집중 유출 가능성이다. 일본에는 3월 결산 법인이 많다. 결산기를 앞둔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이 결산을 위해 해외투자자금을 일제히 회수하게 되면 한국은 외화유동성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엔화로 빌려온 차입금의 총 규모가 130억 달러로, 그중 3월에 만기가 되는 금액은 20억 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둘째, 지난해에는 9월에 집중됐던 국내 외채 만기가 올해에는 2, 3월에 몰려 있다. 3월까지 갚아야 할 외채가 103억 9000만 달러로 올해 돌아오는 외채 245억 달러 중 42%에 달한다. 셋째, 동유럽 금융위기 우려다. 동유럽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은행이 한국 대외채무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외채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과연 이 같은 3월 위기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을까? 금융기관과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3월 위기설은 그야말로 설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크레디트스위스증권은 “한국의 외환보유고 규모나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외화유동성 위기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단언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외국 언론들이 단순히 외환보유액과 유동외채를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유동외채가 반드시 1년 내에 빠져나가는 돈이 아닐 뿐더러, 단기 자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1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일부 다른 시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상무는 3월 위기설의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 “3월 위기설은 꼭 3월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3월 이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설명이다. G

글 · 김소연 매경이코노미 기자

동아DB

환율과 주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3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위기설의 실체를 부인한다.

동아DB

3월 3일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클랜드에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新아시아 구상'으로 실용외교 지평 넓혔다

경제·안보 공조 통해 우의 다지고 자원 확보 등 실리 챙겨

3월 2일부터 8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범세계적 이슈 해결에 기여하는 아시아 협력이 필요하다'며 21세기 '위대한 아시아 시대'를 열기 위한 '신아시아 협력 외교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구상'은 다양한 분야의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경제, 안보, 문화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아시아 협력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신뢰구축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잠재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 구상은 그동안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태 지역에 머물러 왔던 우리의 아시아 외교 범주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 남태평양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아시아권으로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3개국을 순방하는 동안 각국 정상들과 만나 회담을 갖고 녹색성장과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3일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상 차원의 빈번한 교류 등을 통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담은 한·뉴질랜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신속한 국제공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뉴질랜드·호주와 FTA 협상 개시하기로 합의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3월 5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호주 간 FTA 협상을 공식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한·호주 간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6일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비롯한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유전 개발사업인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광구의 계약 연장에 적극 협력하고, 20만㏊의 조림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G

글·구자홍 기자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미 캘리포니아대 도시계획학 석·박사
전 한국미래학회 회장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지난 2월 16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그간 각기 운영돼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기능적으로 통합한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국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들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이같이 전망하고, "당면한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성장을 개념학적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와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의 미래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서 파생되는 신기술과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당면한 실물경제위기는 물론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일류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녹화 사업과 프레온가스 대체물질 개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성장 관련 에너지기술 부문에서 우리가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확신은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녹색성장을 개념학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경제, 산업, 기술, 국토, 환경, 국민의식 및 행동변화 등을 포괄하는 범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는 측면에서 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방한했던 토머스 프리드먼도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녹색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환경훼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토목 중심 경제개발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탈석유를 통한 에너지 자립국가 구현, 이를 통한 국가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를 엄습해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와 같은 공공투자사업은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뿐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녹색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복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국가에서 400만 부산 시민이 페놀 오염을 걱정해야 하고, 대구 시민이 다이옥산 유출로 물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를 받는 이런 사태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댐은 아니더라도 보를 만들어 물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4대강이 서울의 한강처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제는 4대강도 한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는 여름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서머타임 제도는 세계 7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만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서머타임 실시 기간을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으로 총전력소비량의 0.3%,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국민 개개인도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난 만큼 여가 활동도 활발해지고, 별도의 투자 없이도 에너지소비를 줄여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으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따른 내수경기 진작이 가능합니다.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생활방식, 여가선용 방법, 근로문화 등을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임을 감안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한 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노동시간 연장을 우려하는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입니다.

녹색금융, 녹색펀드를 조성해 유망 녹색기술과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녹색금융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연계된 금융으로 탄소금융, 환경금융, 지속가능금융 등을 포괄하는 환경과 금융이 결합된 개념입니다. 녹색금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녹색기술에 민간자본의 투자 확대 및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 위험을 줄일 계획입니다.

올 6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안을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인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과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 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도 산업계의 이해를 구하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G

글 · 대한민국정책포털 제공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총 전력소비량의 0.3%, 연간 13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방식, 여가선용 방법, 근로문화 등을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바꾸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女性天下之大本

세상을 여성이 바꾼다

쓰디쓴 쑥과 맵디매운 마늘만으로 100일을 버텨 사람으로 환생한 웅녀(熊女)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모성애를 고스란히 물려주었나 보다. 우리네 어머니는 물론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역시 한 가정의 주부이자 며느리로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 '슈퍼 울트라 파워'를 발휘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 땅에 고비가 닥칠 때마다 우리 가정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온 여성의 저력은 오랫동안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했던 편견과 불평등의 벽까지 허물었다. 여성이 과거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치부됐던 정·재계, 법조계 등에 진출하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3월 8일 101주년 세계여성의 날에는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우리 정부도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자 갖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여성 스스로에겐 희망의 기회가, 가정에는 행복을 다지는 기틀이 되기를 기원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피우다

女봐라! 불굴의 여장부들

평범한 소시민이지만 남자 못지않은 뚝심과 열정을 가진 여성들이 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모진 역경과 시련을 견디며 억척스레 살아남은 이들에겐 경제적 고통이나 주위 사람들의 까칠한 시선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어떠한 좌절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와 불굴의 투지를 지닌 여성들. 성별, 인종, 나이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자신의 영역에서 행복을 꽃피운 집념의 여성들이 여기에 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두 딸을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일한 덕분에 환경미화원 '총감독'이 된 신순옥 씨.

33년 베테랑 환경미화원 신순옥

부산시 금정구청 환경미화원 신순옥(57) 씨는 30여 년 전인 1974년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금정구청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한 지 석 달 된 남편이 그날 "저녁 근무 마치고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기로 했으니 먼저 자"라는 말을 남긴 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이튿날인 새해 아침, 파출소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남편을 발견했을 때, 신 씨는 목 놓아 슬픔을 토해낼 겨를도 없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신 씨의 뱃속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석 달 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로 졸지에 가장이 된 신 씨는 남편이 일하던 그곳에서 33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것도 65명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총감독' 자리에 올랐다. 신 씨는 지금도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미어진다고 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숱한 나날을 숨 죽여 울었다는 신 씨의 두 눈에는 어느새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처음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보상금으로 나온 150만 원은 시댁에서 다 가져가고 구청에서도 저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저를 쓸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와 뱃속의 아이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석 달을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구청장님이 제가 안쓰러웠던지 자리를 주셨지요."

당시 구청엔 신 씨 외에도 16명의 여성 환경미화원이 있었다. 대부분이 신 씨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남편의 직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환경미화원이 내리막길에서 리어카 무게에 눌려 변을 당하거나 새벽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경우 아내는 남편의 뒤를 이을 수 있었다. 가장을 잃은 가족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다. 여성이 해내기엔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신 씨라고 예외일 순 없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몇 번 있었죠. 한번은 내리막길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승용차가 리어카 옆을 긁고 지나가지 뭐예요. 쓰레기 무게 때문에 리어카가 앞으로 쓰러질 듯한 상황에서 발뒤꿈치에 단단히 힘을 주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마터면 그날 쓰레기더미에 깔려 저승으로 갈 뻔했어요. 그 짧은 순간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대로 나까지 떠나면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절박함이 저를 살려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접고 시동생의 권유대로 경남 창녕의 시골집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을 느끼기도 했지만 남편의 무덤 앞에서 했던 다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다.

"남편에게 당신 직업으로 정년까지 마치고 아이들도 잘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건 남편과의 약속이면서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어떻게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석 달 만에 둘째딸을 낳은 신 씨는 두 달 동안 출산휴가를 간 것 말고는 2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미화원 업무가 끝나면 곧바로 산동네와 좁은 골목들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해 큰길에 내놓는 부업을 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하는 건 고사하고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든 날이 허다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준 두 딸을 생각하면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에요. 두 딸 모두 결혼했는데 큰아이는 식당을, 작은아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둘 다 똑 소리가 납니다(웃음)."

남편과 약속한 정년까지 이제 3년을 남겨둔 신 씨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이들을 좀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이자 아빠 노릇까지 도맡아 하면서 꿋꿋하게 살아온 엄마 신씨는 두 딸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다.

다문화가정 안주인 여선영

2년 전 열일곱 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서울 송파구에 다문화가정을 이룬 베트남 여성 여선영(레티투 프엉 · 23) 씨. 해맑게 웃는 얼굴이 매력적인 여 씨는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국생활 정착에 성공한 사례다.

"베트남에서 한국드라마를 즐겨보며 한국을 내심 동경했어요. 특히 '겨울연가'와 '천국의 계단'을 재미있게 봤는데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해 보이는 한국 남자들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한국 남자가 있는데 만나보라는 주위의 권유를 받았을 때 싫지 않았어요."

조영철 기자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선영 씨.

여선영 씨의 소망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루 빨리 양재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시부모와 남편의 짐을 덜 수 있는 '일하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남편은 여 씨를 보기 위해 베트남을 찾았고, 첫눈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곧바로 결혼에 골인했다.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다. 여 씨는 한국음식은커녕 한국말도 할 줄 모르는 답답한 며느리라고 밉보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좀처럼 떨칠 수 없었다.

"시아버지께서 목소리가 크세요. 아버님이 저를 보며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저를 혼내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님께선 제게 반찬 이름들을 가르쳐주셨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배운 덕에 금세 익혔죠."

남편은 여 씨가 말이 통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책을 여러 권 사다가 직접 한국어를 가르쳤다. 시아버지도 한 수 거들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열심히 시범을 보이며 요리 비법을 전수해줬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자신을 친딸처럼 너그러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가족들 덕분에 여 씨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남편은 제가 꿈꿨던 바로 그 한국남자였어요. 저한테도 따뜻할 뿐 아니라 친정 식구들에게도 잘했어요. 남편이 일하러

가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시아버지와 청소하러 다니는 시어머니도 집을 비우고 나면 저 혼자서 외로울까봐 집 근처에 있는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그 덕에 매일 두 시간씩 한국말, 요리, 컴퓨터, 노래, 양재 같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여름 단란하던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 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건축 일을 하던 남편의 일거리가 뚝 끊긴 것이다. 다행히 남편은 오래지 않아 백화점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일용직 사원으로 채용됐지만 지난해 7월 25일 아들이 태어나던 날에 다시 실직을 하고 말았다. 남편이 출산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결근한 게 화근이었다. 남편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지금은 젖먹이 아들 종석이와 여 씨, 남편까지 시부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남편이 집에서 논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결혼을 후회해본 적은 없어요. 많은 나이 차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없고요. 다만 남편이 지금의 시련을 잘 극복하길 바라죠. 시부모님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할 뿐이고요.”

한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아직은 거북하지만 한국인 ‘여선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그쯤은 견딜 만하다는 여 씨. 지금 그의 소망은 오로지 한 가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루 빨리 양재 기술을 완벽하게 익혀 시부모와 남편의 짐을 덜 수 있는 ‘일하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나이 초월한 할머니 발명왕 김예애

발로 밟는 수도장치 ‘발바리’를 개발한 김예애(80) 할머니도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승리를 거둔 여성이다. 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은 서울 종로구 종로4가의 ‘이지 밸브’ 사무실은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맨 꼭대기인 6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20, 30대 젊은이도 오르기에 숨 가쁜 높이의 계단을 매일 두세 차례 오르내린다는 김 할머니는 “매일 이리로 등산하러 오는 기분”이라고 했다. 나이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김 할머니는 2002년 발바리 수도 특허증을 받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설거지를 하다보니 물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거지도, 수도꼭지 조절도 모두 손으로 해야 하니까 물을 아끼고 싶어도 중간중간 수도를 잠그면서 설거지하기가 귀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손으로는 설거지만 하고 수도꼭지 조절은 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발바리를 개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수도 관련 회사를 수도 없이 다녀봐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들 집에 가서 손자나 보라는 식이었어요.”

조영철 기자

김예애 씨는 ‘발바리’ 수도장치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싶다.

그렇다고 그쯤에서 포기할 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교사, 잡지사 광고국 영업사원, 자수공장 사장 등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자신이 아니던가. 기계에 문외한이던 김 할머니는 발바리 수도의 금형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며 배운 정성으로 특허증을 따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 생각했던 김 할머니의 기대는 빗나갔다. 팔고 싶어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

“주방용품 회사에서 선뜻 사줄 줄 알았는데 손을 내미는 곳이 없더라고요. 발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시키려 해도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라서 마케팅은 도통 몰라요. 하는 수 없이 지금은 이지밸브 인터넷 사이트(www.easyvalve.co.kr)를 통해 팔고 있어요. 설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았죠.”

국내에서는 아직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한 할머니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각 대학 무역학과 학생들이 발바리 수도를 전시하고 홍보한 일이 커다란 전기를 마련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두바이 전시회는 한 TV프로그램에서 발바리 수도를 이용해 80%의 절수 효과를 입증하는 장면을 본 무역학과 학생의 제안과 정부의 후원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손으로는 설거지만 하고 수도꼭지 조절은 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발바리를 개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수도 관련 회사를 수도 없이 다녀봐도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김 할머니의 꿈은 전 세계 각국과 국내 임대아파트에 발바리 수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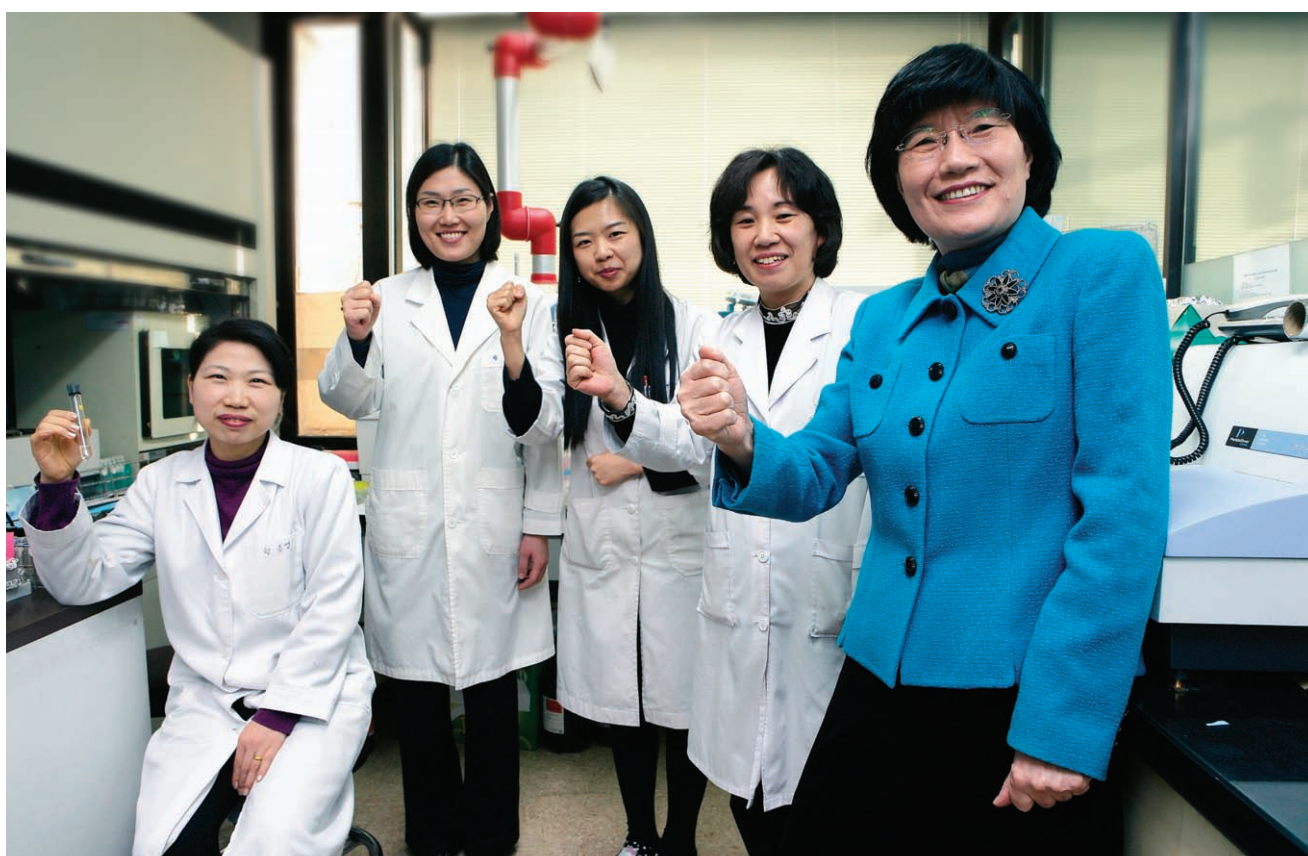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다량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에는 물세를 아낄 수 있는 발바리 수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는 어려운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게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는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열정과 끈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김 할머니. 오늘도 할머니의 굳은살 박인 두 손과 발은 쉼 없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금녀의 벽은 없다

女風堂堂 "우리는 뉴 프런티어"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여성들에겐 노예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는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지금은 적어도 눈에 드러나는 '남녀차별'의 벽은 무너졌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여전하다.
과거에 금녀의 벽을 허물었듯 유리천장을 깨려는 여성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정경택 기자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들. 맨 오른쪽이 정희선 소장.

한국의 CSI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첫 여성소장 정희선

지금도 사회 곳곳엔 "여자는 안 돼"라는 말이 통용되는 남자들만의 성역이 존재한다. 여성의 역사는 이런 성역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 한국의 CSI로 불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정희선(54) 소장은 53년 국과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장이다. 2002년 국과수 최초 여성 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소변이나 모발에서 필로폰을 검출해내는 기법을 비롯해 약·독극물 관련 특허 4개를 보유한 과학자이기도 하다.

"국과수에서 하는 일 자체가 남자들도 견디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신의 위에서 검출된 내용물을 분석하는 일도 여간 곤혹스럽지 않죠. 게다가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1978년 처음 입소 당시 국과수의 여성 연구원은 단 두 명뿐이었고, 3년 이상 버틴 여성 연구원은 국과수가 생긴 이후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여직원이 50명이 넘는다. 최근엔 시신을 부검하는 법의관도 두 명이나 새로 들어왔다. 여성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을 정도다. 정 소장이 길을 개척한 덕이다.

"저 역시 한때는 승진이 안 돼서 퇴직을 고민했던 적도 있어

요. 그런데 일이 좋으니까 버티겠더라고요. 미지의 물질에서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찾는 재미가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땐 꿈속에서도 괴롭지만, 해결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못하죠."

정 소장은 과학수사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사물을 더 섬세하게 관찰하기 때문에 사건 해결 단서를 찾는 데 유리하다는 것.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여성 연구원의 힘으로 해결한 것도 많아요. 한 유괴사건에서 유일한 단서인 음성을 분석해 범인을 찾아낸 것은 여성의 섬세함이 빛을 발한 경우죠. 우리 연구원들이 모발에 있는 극미량의 마약 성분을 찾아내는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에요."

그는 "능력 있는 여성 연구원이 육아문제 등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육아·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남성 중심의 조직이던 국과수에서 30년을 보낸 그는 여성 직장인 후배들에게 '사회생활' 노하우도 귀띔했다.

"젊을 때부터 배려를 배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죠. 자기 것만 고집해서는 '인간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술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마실 때 맥주라도 마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가서 한번 참여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여성 연구원의 힘으로 해결한 것도 많아요. 특히 몇 년 전 유괴사건의 유일한 단서인 음성을 분석해 범인을 찾아낸 것은 여성의 섬세함이 빛을 발한 경우죠"

최초의 여성 경비정장 민꽃별 경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민꽃별(32) 경위도 성역 하나를 깬 '최초의 여성'이다.

"어려서부터 바다와 경찰이 좋아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에 진학했고, 2000년에 특채로 경사가 됐어요. 당시만 해도 6000여 명의 해경 중 여경은 12명뿐이었죠. 그런데 모두 사무실 근무만 하고 있었어요. 전 경비정 근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배를 타다 2005년 경위로 승진하면서 발령을 내달라고 했죠. 당시 서장님이 트인 분이라 제가 최초의 여성 경비정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해양경찰 경비정은 해상이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인명구호, 조난선박 구조,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뱃일은 아무래도 여성이 하기엔 고되다. 특히 조난한 사람들을 구조할 땐 솔직히 여자라서 힘에 부친다고 한다. 반면

정경택 기자

바다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 경비정장 민꽃별 경위(맨 앞).

여자라서 좋은 점도 있다.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짧게는 이틀 사흘, 길게는 일주일씩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칫 삭막해지기 쉬운 경비정 분위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그의 뒤를 따라 경비정 근무를 하는 여경들이 지금은 30여 명에 이른다. 곧 또 한 명의 여성 경비정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계기 레이더 탐색 여경, 해경 여성 특공대원이 탄생하는 등 해경 내에서 여성 파워가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민 경위는 기쁘기만 하다. 그의 꿈은 경정이 되어 5000t급 대형 해양경찰 경비정을 지휘하는 것이다.

30대 대기업 첫 여성 CEO 김정아 대표

재계에서도 '유리천장'이 뚫리고 있다. 지난 1월 CJ그룹 계열사인 CJ엔터테인먼트 대표에 김정아(47) 상무가 취임하면서 30대 대기업 최초로 여성 CEO가 탄생한 것.

김 대표는 1986년 미국에서 프로듀서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2005년에는 CJ 배급마케팅 부장으로 스카우트됐고, 이듬해 해외영화사업본부장에 취임했다.

김정아 CJ엔터테인먼트 대표.

"그간 여성 CEO가 배출되지 않은 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고 여성의 수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지 능력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 간부들의 비율이나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의 여성 비율을 보면 조만간 훌륭한 여성CEO가 배출될 거라 기대합니다. CEO에는 성 차별이 없습니다. 업무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는 "여성 대표보다는 영화와 문화콘텐츠 사업에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이너로 불리고 싶다"는 야무진 각오를 밝혔다. G

글 · 최호열 기자

'금녀의 벽' 허문 최초의 여성들

이태영 변호사, 양승숙 장군, 이소연 씨…

여성의 법조계 진출은 고(故) 이태영 박사가 시초다. 1946년 서울대 법대 첫 여학생으로 입학한 그는 1952년 여성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54년 변호사가 됐다. 첫 여성 판사는 1년 후배인 황윤석 씨(1954년)가 임용됐다. 검찰 쪽에서는 1982년에야 조배숙 씨와 임숙경 씨가 처음으로 검사에 임용돼 '금녀의 벽'을 허물었다.

2000년대 이후엔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2003년 강금실 씨가 첫 여성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이듬해인 2004년엔 김영란 씨가 대법관이 됐고, 이영애 씨도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되며 첫 여성 법원장에 올랐다.

가장 남성적인 조직인 군에서도 여성의 도전은 이뤄졌다. 1991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군무관이 된 이은수 씨는 2005년 군사법원장에 올랐다. 2001년엔 양승숙 씨가 별을 달며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1981년 김복선 씨가 첫 여성 헬리콥터 조종사가 된 데 이어, 2007년엔 하정미 대위가 KF-16 전투기 조종사가 됐다.

조종사에 대한 여성의 도전은 민간항공에서도 이어져 지난해 홍수인 씨와 신수진 씨가 민간항공 여성 기장이 됐다.

여성 장관은 건국 초대 내각(임영신 상공부 장관) 때부터 꾸준히 존재했다. 오히려 차관 승진의 벽이 더 높아 2001년에야 최초로 김송자 씨가 노동부 차관에 임용됐다. 2006년 한명숙 씨가 제37대 국무총리에 임용되며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973년 여성 최초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995년 첫 여성 민선시장에 당선됐다. 외무고시의 벽을 뚫은 첫 여성은 김경임 전 튀니지 대사다. 이인호 KAIST 김보정 석좌교수는 1996년 핀란드 대사로 부임하며 첫 여성대사로 기록됐다.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은 1945년 수도경찰서장에 취임한 양한나(양귀념) 씨였다. 두 번째 여성 경찰서장은 40년이 지나서야 나왔다. 1998년 옥천경찰서장에 취임한 김강자 씨가 그 주인공이다. 최효숙 씨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장에 임명돼 첫 여성 교정기관장이 됐다.

이밖에도 강은옥 씨는 2000년 기관사 등용시험에 합격해 최초의 여성 철도기관사가 됐고, 윤하나 씨는 1999년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어 또 하나의 벽을 허물었다. 2000년 연세대생 정나리 씨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남녀공학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1993년엔 지현옥(등반대장), 최오순, 김순주 씨가 여성으로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정상을 정복하기도 했다.

이소연 씨는 지난해 4월 우주정거장에 11일간 체류한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이 됐다. 이제 남성을 넘어 여성이 최초인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2007년 여성 최초로 KF-16 전투기 조종사가 된 하정미 대위.

부부 10쌍 중 9쌍 생활비 지출 아내가 결정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9.8%로 '세상의 반은 여성'을 실감하게 했다.

동아DB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여성은 남성보다 7년 더 오래 산다. 우리나라 여성은 28세쯤 결혼해 일생 동안 평균 1.2명의 아이를 낳고, 부부 10쌍 가운데 9쌍은 여성이 일상 생활비 지출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을 하고,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상용직이며, 여성취업자 5명 중 1명은 전문·관리직 종사자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 합격자의 절반 이상도 여성이다. 이것이 통계로 본 오늘날 한국여성의 모습이다.

세상의 절반은 여성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통계청 자료집을 보면 "세상의 반이 여성"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2008년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8%, 여성인구는 2419만 1000명, 남성인구는 2441만 6000명이다. 남녀의 인구증가율은 전년 대비 0.3% 상승으로 동일하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2006년 이후 여성이 49.8%, 남성은 50.2%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기대수명(2007년 기준)은 82.7세로 남성(76.1세)보다 6.6세 오래 산다. 10년 전인 1997년과 비교하면 여성은 4.6세, 남성은 5.6세 증가했다. 남녀 간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의 8.4세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사망원인(2007년 기준)은 암이 101.1명(10만 명당)으로 단연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뇌혈관질환(10만 명당 62.6명), 심장질환(43.2명), 당뇨병(22.8명), 자살(18.1명) 순이었다. 이들 '5대 사망원인' 중 여성 사망률이 남성 사망률보다 높은 사인은 뇌혈관질환(1.1배)이다.

5가구 중 1가구는 여성 가구주

2008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5가구 가운데 1가구의 가구주는 여성이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는 2008년 368만 9000명으로 1980년 116만 9000명의 3.2배 정도로 증가했다. 남성 가구주는 같은 기간에 680만 1000명에서 1298만 4000명으로 약 1.9배로 늘었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1980년 14.7%에서 2008년 22.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평균 초혼연령(2007년 기준)은 여성 28.1세, 남성 31.1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3.0세 적으며, 전년도에 비해 여성은

0.3세, 남성은 0.2세 높아졌다. 2000년의 초혼연령(여성 26.5세, 남성 29.3세)에 비하면 각각 1.6세, 1.8세 높아졌으며,1990년 이후 남녀 모두 평균 초혼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평균 이혼연령(2007년 기준)은 여성 39.5세, 남성 43.2세, 평균 재혼연령은 여성 40.1세, 남성 44.8세로 이혼연령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08 추정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약 1.19명이다. 이는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것이다. 1975년 3.47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합계출산율은 '황금돼지해(2007년)'를 계기로 2006,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2008년 다시 감소했다.

2008년 말 현재 가임여성 인구(15~49세)는 1353만 2000명이다. 이는 전년(1357만 9000명)보다 0.4% 감소한 것. 특히 결혼 및 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줄어 2005년 809만 4000명을 기점으로 2006년 799만 1000명을 기록, 800만 명대가 깨진 뒤 매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또 부부 간 의사결정을 할 때 '일상 생활비 지출을 부인이 결정'하는 가정이 65.3%이고 '전적으로 부인이 결정'하는 가정도 25.1%나 된다. '주택매매 및 이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74.7%)가 가장 많고, 다음이 '남편 결정(14.2%)', '부인 결정(11.2%)' 순이다.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도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가정이 각각 67.8%, 57.7%다.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해서는 부부공동 결정이 아닌 경우 부인이 결정하는 비율(39.2%)이 높고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는 극소수(3.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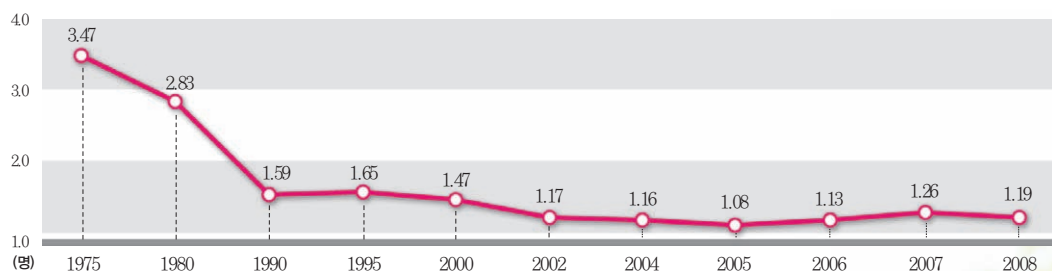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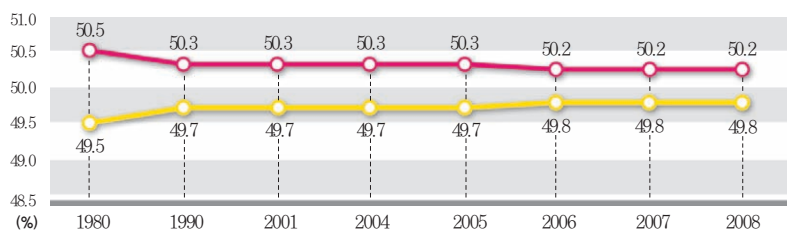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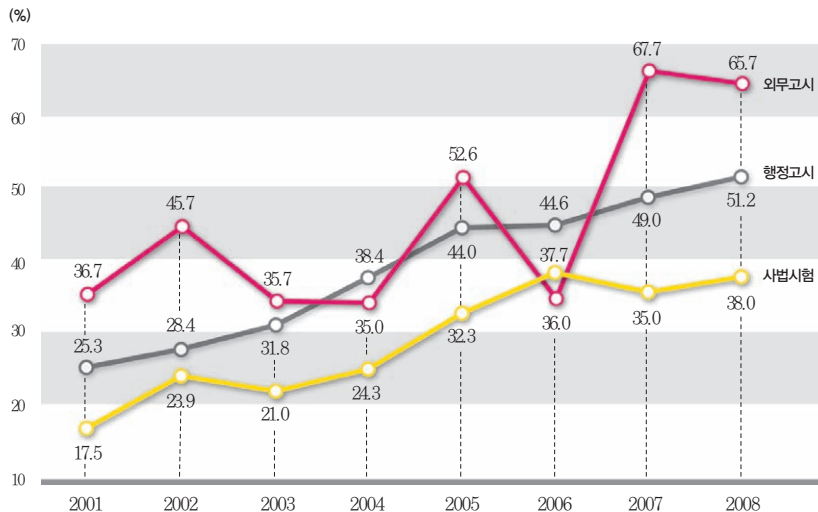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2008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0%다. 전년(50.2%)보다 0.2%p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5년에는 48.4%, 2000년 48.8%, 2005년 50.1%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1995년 76.4%, 2000년 74.4%, 2005년 74.6%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다. 19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은 1.6%p 증가했으나, 남성은 2.9%p 감소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가 65.8%로 가장 높다. 20대는 40대와 비슷한 62.7%, 30대는 56.1%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 전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더불어 출산을 하고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69.6%다. 이 가운데 상용직은 29.9%, 임시직은 29.7%, 일용직은 9.9%다.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1%p, 1.6%p 높은 반면, 상용직은 14.3%p가 낮다. 이는 상대적으

평균 초혼연령(2007년 기준)은 여성 28.1세, 남성 31.1세다. 여성이 남성보다 3.0세 적으며, 전년도에 비해 여성은 0.3세, 남성은 0.2세 높아졌다.

합계출산율 추이

국회의원, 고시합격자 등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의 경우 여성임금근로자가 61.5%였고 이 가운데 상용직이 19.1%, 임시직 28.5%, 일용직 13.9%였던 것과 비교하면 임금금로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상용직은 늘고 일용직은 줄고 있다.

한편 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30.4%로, 이 중 여성 자신이 주인인 자영업주는 18.0%, 무급으로 가족의 영업을 돕는 종사자는 12.5%다.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9.8%다. 10년 전(1998년)과 비교해볼 때 여성취업자는 22.1% 늘었고,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6.5% 증가했다. 남녀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0년 전(1998년)엔 9.2%p 차이가 났으나, 2008년에는 1.9%p로 여성의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이 계속 증가해 남녀차가 줄어들고 있다.

여성기업인 숫자는 지난해 9월 기준 4906명이다. 2006년 674명에서 짧은 기간 동안 7배가량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 국가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이 때문에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7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시·외시 여성 합격자 비율 50% 넘어

2008년 말 현재 제18대 여성 국회의원 수는 41명으로 전체 의원 299명 중 13.7%를 차지한다. 여성 의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제16대)과 2004년(제17대)보다 각각 7.8%p, 0.7%p 증가했다.

국가 고등고시에서도 여성 강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8년 행정고시에서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51.2%(124명)를 차지, 행정고시 사상 가장 높은 여성합격률을 기록했다. 2008년 고등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가 65.7%로 가장 높고, 사법시험도 38%에 달해 '3대 국가고시' 가운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의 여성합격자 비율이 반을 넘는다. 2007년의 경우엔 외무고시 67.7%, 행정고시 49.0%, 사법시험 35.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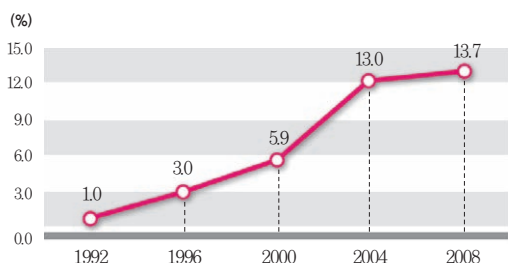
7,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8년 7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직군 공무원 합격자의 31.9%, 기술직군 합격자의 22%가 여성이다. 또 7급에만 있는 특수직인 외무·영사직 합격자의 60%가 여성이어서 특히 외무 관련 공직 진출에 여성 비율이 높다.

2001년의 경우 고등고시와 공무원시험 여성합격자는 9급 행정직군이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무고시(36.7%), 행정고시(25.3%), 사법시험(17.5%), 7급 행정직군(16.8%) 순이었던 점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9급 행정직군을 제외하고 부문별 여성합격자가 2배 정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군, 여성공무원 등 국방분야 여성 간부는 간부 정원의 2.7%(2007년 기준 4959명)다. 이는 1999년의 1.4%(2085명)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가 여자생도를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하는 등 국방분야에서 여성고급인력 유치 제도를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부가 발간한 '2008 여성정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여대생 비율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통틀어 37.1%다.

젊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부 성과에 따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

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학생 비율은 46.1%, 박사과정 중인 여학생 비율은 34.4%다. 여자 대학교수의 비율은 전체 대학 교수 가운데 17.3%이며 국공립대학(11.4%)보다 사립대학(19.3%)의 여교수 비율이 더 높다.

여성 블로거 비율 58%로 남성보다 훨씬 많아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71.5%(2007년 기준)다. 남성은 81.6%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으며 여성의 경우 전년보다 1.2%p 늘었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남자가 14.7시간, 여자가 12.7시간이다.

여성은 '교육학습' '쇼핑' '개인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남성보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다. 성별로 보면 '교육학습' '쇼핑' '개인홈페이지 운영'은 여성이, '자료·정보 획득' '전자민원' '소프트웨어 내려받기와 올리기' 등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표준 블로거'는 '10대 여성'이다. 블로그 통계업체 블로그얍이 발표한 2008년 블로그백서에서 한국 블로거의 나이는 10대가 54%, 20대가 32%, 30대가 11%, 40대가 2%를 차지했다.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58%, 남성이 42%로 여성 블로거가 훨씬 많았다.

여성부 정책총괄과 조진우 과장은 "여성 관련 통계를 보면 젊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실제로 공기업이나 사기업 인사담당자들로부터 우수한 여성 인재가 과반을 차지해 여성 인재를 다 뽑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과장은 "그렇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시합격자 등 일부 분야에서의 성과 때문에 빚어진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조 과장은 "지난 몇 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회에 신규 진출한 여성이 많은 반면 퇴직 여성도 많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여성정책은 중도 퇴직하는 여성의 수를 줄이고 여성들의 재취업을 장려해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향후 저출산·노령화시대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EPA

변도윤 여성부 장관

"선진국 도약 위해선 여성 경제활동 확대 필수"

변도윤 여성부 장관은 3월 13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한 해 동안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이끌어온 변 장관에게 그동안의 여성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장관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어떠신지요.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취임 이후 대규모 조직개편을 한 여성부 내부안정을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인권, 지위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펼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셨나요.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결혼, 출산 등으로 중도 퇴직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여성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9개 부처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57만여 명이 온·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장관 취임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둔 분야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여성취업 관련 정책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왔고, 올해 초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50곳을 통해 구직여성 3만 7000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 노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경제위기로 여성의 입지가 더욱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여성부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성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여성 쪽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요. 또 여성의 구직활동은 늘지만 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0일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설치했고,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여성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 내에 설치된 각 부처의 경제위기 특별기획팀과 연계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 초대회장
서울YWCA 사무총장
현 여성부 장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지난해 열렸던 브라질 여성들의 가두행진.

정부가 경제분야에 치중하느라 소외여성 정책이나 양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부는 장애인 여성, 외국인 여성 등 소외되기 쉬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국 72개 기관을 활용해 장애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여성 쉼터 증설 등으로 취약계층인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역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성인지 예산'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기획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이름이 바뀐 이후 여성부의 역할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까.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여성부 업무 중 보육과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인력과 예산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여성부의 주요 업무인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등 각 분야의 기능과 업무는 오히려 집중되고 강화되어 올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12%가량 증액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 기념주간 동안 미국 뉴욕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수석대표로 참가하셨는데, 그곳에서 벌인 활동을 소개해주시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로, 매년 3월 초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번 제53차 회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석대표로서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과, 여성정책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번 회의의 의제인 'HIV/AIDS 돌봄을 포함한 남녀 간 책임 공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수석대표와 유엔사무국 인사 등과 개별면담을 갖고 협력과 공조를 강화했고, 여성교민들과 만나 국내외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여성부 장관으로서 재임 중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펼쳐나가고, 여성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또 여성 위기상황을 즉시 파악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 아동과 여성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시스템 마련, 여성 피해자 지원, 소외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당부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여성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사회진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개인의 발전이나 국가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장관 취임 이후 '여성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왔고,
올해 초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50곳을 통해 구직여성 3만 7000명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쏟을 생각입니다."

동아DB

지난해 5월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에 참석한 엄마와 아이들이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능력 개발로 취업 쑥↑ 보육 지원해 부담 뚝↓

피부 와닿는 다양한 정책으로 '女心 만족' 노력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예전에 비해 많이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남녀 양성이 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일구려면 시간과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이를 사회적, 국가적 손실로 인식한 정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를 여성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 여성인권 보호와 종합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을 설치했다.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은 여성가장이나 구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빈곤과 차별, 폭력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에게 보건·복지·취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여성부는 올해 민관 공동협력사업 100개를 선정해

총 17억 원을 지원한다. 내용별로는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34건 △여성장애인, 저소득 여성가장 등 소외계층 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 나눔운동 25건 △여성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 10건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인권 증진 관련사업 20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5건 △가족의 사회적 지지기반 조성 관련사업 6건이 선정됐다.

정부가 올해 들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여성,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등 3대 여성정책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봤다.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

구직여성 대상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으로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부와 노동부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여성새로일하기프로젝트'는 그 일환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기관 50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덕분에 전업주부 또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 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새일센터로 선정된 50개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35개소, 여성회관 10개소, 대학 3개소, 대한간호협회 등 기타기관 2개소다. 이 가운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등은 앞으로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력 부족 해소 및 경력단절 간호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일센터 50개소 중 울산, 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여성문화회관 등 4개소는 이주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은 2월 17일 새일센터로 지정된 서울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3월 4일에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들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처럼 여성부는 실직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의 효율적인 취업지원 방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진 차관은 "실직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취업지원기관에 위기여성 상담 전담자를 지정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수시 방문을 통해 수렴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올해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 10만여 명에게 구직 상담과 직업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 중 3만 7000명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총 1000명의 주부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총 1,000명 주부인턴 채용

직장을 그만둔 후 공백이 길어 재취업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들에겐 주부인턴제도를 추천한다. 정부는 총 1000명의 주부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주부인턴제도는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막연한 편견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할 경우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부인턴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학력제한도 없고, 직업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주부인턴 희망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필요한 경우 주부인턴 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특화훈련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노동부가 시행 중인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하다.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시도할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70억 원을 들여 총 5138명에게 교육기회를 준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지난 1월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비롯해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공모한 후 최근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난 2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정했다. 훈련과정 심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2월부터 본격 실시 중인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프로그램은 피부관리, 헤어디자인, 요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과정에서부터 세무관리, 사무자동화, 전산회계, 관광통역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요하는 전문적인 과정까지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지원자격을 준다.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만 29세 이하 미혼여성은 후순위로 선정한다. 문의는 해당 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로 하면 된다.

여성부는 2월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 엄마 누리꾼을 마미로거(Mamiloger)로 모집했다. 마미로거는 맘(Mam)과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로, 3개월간 온라인에서 어린이 성폭력 추방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한다.

여성친화 기업문화 만들기

여성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선진기업들과 같이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과 인재육성 전략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내 유수 기업들과 여성친화 기업문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같은 달 현대중공업, 올 2월엔 SK텔레콤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적 기업이란 여성인재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을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 리더 역량을 강화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아동 성폭력 추방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신고는 총 1만 7178건인데 그중 13세 미만 아동의 피해는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1220건이었다. 이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하루에 3.3명씩 희생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 피해신고는 90% 증가했다. 이는 성폭력사건 자체가 증가한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피해자가 피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율이 10% 미만이라는 점과 통계 수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해 초등학교 간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보듯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 등 국무총리실 산하 9개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을 구성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과 대응책 마련 및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 '우리아이 지키기'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관련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했다. 또한 2007년부터 개최해온 '우리아이 지킴의 날(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도 해마다 열어 아동 성폭력

동아DB

지난 2월 25일 여성부와 SK텔레콤이 여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왼쪽).

지난 2월 19일 아동 성폭력 지킴이날 행사 중 마미로거 대표 이민선 씨가 선서하는 장면.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여성부는 2월 온라인 주부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 성폭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엄마 누리꾼(네티즌)을 마미로거(Mamiloger)로 모집했다. 마미로거는 맘(Mam)과 블로거(Blogger)의 합성어로, 3개월간 온라인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한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도 올해부터 확대 강화된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이 의료, 상담,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아동안전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를 대폭 늘리는 한편, 지난해 전국 고교 1325곳에 5333대가 비치돼 있던 CCTV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와 그 주변에까지 확대 설치한다.

폭력피해 여성 보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잘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가정폭력 피해신고는 2002년 1만 5151명에서 2007년 1만 1744명으로 감소했으나 그 수치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간 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피해신고는 2002년 1만 1587명에서 2007년 1만 5325명으로 32.3%가 증가했다. 2007년 기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강간 혹은 강간미수 피해 경험 여성은 1000명당 2.2명으로, 여성인구 전체로 보면 5만~6만 명에 이르는 셈이다.

여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그룹 홈' 형태의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33쪽 기사 참조).

한편 여성부는 지난해까지 16개소였던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2개소 추가 설치해 폭력피해 여성과 학생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DB

행정안전부 주부모니터단 출범

생활공감정책 최일선에서 찾는다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이 2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연수회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주부모니터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정안전부 공모로 선발한 주부모니터단은 총 3041명. 20~60대 전업주부에서부터 교사, 농업인, 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구성됐다. 이에 따라 주부모니터단은 정책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입안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재 실행 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부모니터단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세금제도나 교통, 교육, 문화, 고용, 복지,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단원들이 상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토론이 가능한 인터넷 카페(www.oklife.go.kr)와 토론방을 개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정책제안 실적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단원들에게 최소한의 활동실비 보상, 연 2회 워크숍 개최, 정부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 모두가 동참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온 것처럼 정부도 국민의 지혜를 정책입안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프로슈머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부모니터단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을 펼친다.

성매매 방지 및 예방 강화

정부는 성매매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일부 집결지를 와해하고 피해여성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비 지원 범위에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이 추가됐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을 초중고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까지 대폭 확대해나간다.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단속해 해외 불법정보의 유입도 강력히 차단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처장과 여성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법무부, 경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 점검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점검체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차상위 이하 가정의 만 0~1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진영곤 여성부 차관이 3월 4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방문했다(위). 지난해 12월 4일 변도윤 여성부 장관(가운데)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개소식을 축하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책 펼치기

영유아 중심 보육정책

정부는 지난해 1조 4178억 원이던 보육예산을 올해 1조 7104억 원으로 20.6% 확대해 공보육기반 강화를 통해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9만 명에게 주어졌던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이 올해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61만 명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유시설의 질적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안전공제회 설립도 추진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는 양육수당을 도입해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차상위 이하 가정의 만 0~1세 영유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 대체교사, 초과근무수당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이 근무기피 문제와 지역별 편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2만 1000명, 월 11만 원)과 대체교사 인력(450명)을 지원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도 강화했다. 산모의 산전 진찰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비용을 지불할 때 결제되도록 한 것. 산전 진찰비용은 1인당 20만 원, 1회 방문 시 4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서 안정, 자녀 양육, 사회성 향상 등 기초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취업에 적합한 직종 개발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간병인을 보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도 강화돼 양육비는 8세까지, 고교생이 있는 가정에는 입학금과 수업료도 지급된다. 정부는 여성출소자를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에 필요한 자신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여성친화기업 대한항공 & 한국IBM

해외파견 여성 배려, 불임치료 때 휴직 허용 "男부럽지 않아요"

대한항공

지난해 12월 여성부가 '국내 1호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대한항공은 여성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의 특성상 여성근로자의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항공기 조종 및 정비 분야에서도 국내 최초로 여성 기장 2명을 배출하는 등 여성근로자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여성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무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을 출산, 육아, 조직에서의 성장 비전 부재 등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임신휴가'를 비롯해 불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 휴직을 부여하는 '불임치료 휴직제도', 수유시설인 '모아사랑방 운영', 출산 후 3년 이내에 최대 1년간 쉴 수 있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나 유산 및 조산 때 90일간 쉬게 하는 '산전후 휴가' 등은 모두 출산 및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이와 함께 한 자녀당 만 7세까지 월 10만 원을 보조하는 '육아보육비 지원제도'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 동안 부서별 업무여건을 감안해 주당 15~30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여성근로자에게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자 여성인력 양성에도 열심이다. 해외 파견 때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할 뿐 아니라 여성 객실관리자를 키워내기 위한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채용 면접관 및 신입직원 멘토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월 12일 전문직여성한국연맹으로부터 'BPW 골드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홍보실 심문만 씨는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일의 능률이 더욱 높아졌다"며 "회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여성근로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여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국IBM

여성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국IBM 역시 여직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 탄탄하기로 유명하다. 1997년 출범해 현재 6기가 활동 중인 사내 여성위원회는 2년 임기로 리더와 각 사업부 대표 및 어드바이저 등 20여 명의 여직원이 선발돼 여직원의 지위 향상과 대내외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영업 역량, 리더십 개발, 일하는 부모 등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회의 △2년마다 새로운 주제로 여성인력의 역량 개발과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체 여성 협의 △여성 핵심인재 개발을 위한 여성 리더십 캠프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IBM은 현재 성공한 리더들이 여직원의 역량과 경력 개발에 필요한 코칭과 카운슬링을 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유·사산 휴가제도는 물론이고 출산한 여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푸르니 어린이집, 사내 수유 및 유축실, 파트타임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 중이다. 특히 임신 중인 여직원의 휴식과 모유수유 중인 여직원의 편의를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센터 내 유축실에 고급 전동식 유축기와 전용 냉장장치까지 비치하고 있다. 한국IBM 홍보실 손희정 씨는 "직원들이 개인별로 유축기를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사라졌고, 양질의 전동제품을 사용해 업무 생산성과 이용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 부서에는 'WFD(Workforce Diversity Program) 매니저'라는 보직을 가진 다양성 전담자를 두고 있다. WFD 매니저는 회사의 다양성 정책과 고용평등 정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인사제도와 균형을 이뤄 발전할 수 있도록 조율해 최적의 조직적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돕는 것도 WFD 매니저의 몫이다.

한국IBM은 2007년 이화여대와 함께 리더를 길러내는 여성리더들의 모임인 WIN(Woman In Innovation)을 결성한 후 여성임원들의 네트워킹, 권익 향상, 후배들에 대한 롤모델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아태 지역의 '베스트 프랙티스'로 소개된 바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국내 1호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대한항공의 여직원들.

동아DB

한국IBM은 사내 여성위원회를 주축으로 여성 역량강화와 복지에 힘쓰고 있다.

맞춤정보 찾을 땐 클릭! 긴급도움 필요 땐 번호 꾹!

'women-net'은 爲民넷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힘을 당당하게 발휘한다' '동료와 후배를 배려한다' '옳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면 바로바로 말씀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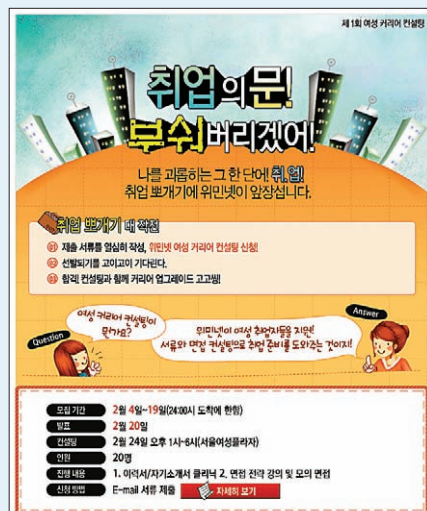
여성부가 운영하는 사이트 '위민넷(www.women-net.net)'의 연간 릴레이 캠페인 중 3월 행사로 개설된 '유리천장을 넘어서는 나만의 노하우' 란에 직장여성들이 올린 댓글들이다. 경제위기로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덕목' '재택근무를 통한 경력관리' '전문학교로 커리어 높이기' 등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2002년 문을 연 위민넷은 정부의 여성정책을 알기 쉽게 알리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도우며,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삶의 조력자가 되어 주는 교류와 공감의 네트워크가 되고 있다.

위민넷은 크게 8개 분야로 나눠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알거리와 읽을거리들을 갖추고 있다. 먼저 '키위'는 정부 정책 가운데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려주는 공간이며 '사이버 멘토링'은 온라인상에서 여성들끼리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다. 또 '위민상담실'은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차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24시간 채팅 상담을 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실. 이밖에 정책 속보, 테마 취재 등을 통해 여성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정보광장', 여성의 경력 관리를 도와주는 '커리어', 여성단체 및 시설, 협회 찾기 정보망인 '여성네트워크', 컴퓨터활용·자격증시험부터 취미 강좌까지 마련해놓은 'e-캠퍼스', 여성단편영화 상영, 디카갤러리 코너 등으로 꾸며지는 '퍼니넷' 등이 위민넷을 구성하고 있다.

위민넷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행사도 벌여 2월 4일부터 17일까지 여성커리어컨설팅 참가자를 모집,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력서와 면접에 대한 개인별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위민넷 취재를 위한 기자단도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9일 여성부에서 발대식을 한 제9기 위민기자단은 모두 53명으로, 20대부터 60대, 대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위민넷 운영을 맡고 있는 여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희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취업창업·어학강좌를 신설하고 여성들의 신규·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특히 오프라인 여성컨설팅 행사가 반응이 좋아 여성 취업·창업과 관련한 오프라인 행사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민넷' 홈페이지(왼쪽)와 오프라인 행사 공고.

여성정책 포털사이트 위민넷은 교류와 공감의 네트워크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그룹 홈'은 한층 더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을 위한 제도다.

위기상황 닥치면 SOS 하세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본 이주여성을 위해 여성부는 지난 1월과 2월 부산, 수원,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역센터를 설치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경찰병원, 법원,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이주여성 상담원이 한국인 팀장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해 다국어 상담을 해준다. 도움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전화 1577-1366번, 또는 각 지역센터별 전화, 인터넷(www.wm1366.or.kr)으로 요청하면 된다.

2006년 문을 연 서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1577-1366번을 통한 24시간 연중무휴 전화 상담과 인터넷·면접 상담을 해왔으며, 지난해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상담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해 지역센터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성부 인권보호과 박동혁 사무관은 "여성부는 이밖에도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 6곳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여성 긴급지원을 위한 수원지역센터 개소식.

이주여성을 위한 1577-1366지역센터 상담원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위한 '그룹 홈'

여성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폭력 피해여성 그룹 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그룹 홈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또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 자립 도우미들은 일선 행정기관 등과 연계해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부산 지역의 임대주택 20채에 41가구, 97명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올해 인천과 원주, 청주 등지에 각각 10채를 새로 임대해 그룹 홈을 확대한다.

입주 순위는 '쉼터(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1순위이며, '남자 아이를 동반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여성'과 '5개월 이상 쉼터에서 지내다 퇴소한 지 1년 미만인 여성'이 2순위, '쉼터에 5개월 미만 살고 있는 여성'이 3순위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하려면 여성부 인권보호과(02-2075-4668)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G

글·박경아 기자

홈런왕 김태균, 선행도 '만루홈런'

백혈병 앓는 청소년 팬과 홈런왕 약속 지켜 화제
독거노인 위한 연탄 배달, 태안 기름제거 등 봉사 생활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배트에 맞은 공이 담을 넘는 순간 가장 먼저 인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인영이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무척 기뻤습니다."

온 국민의 응원 열기 속에 3월 5일 개막한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도쿄라운드에 출전 중인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27) 선수. 2008년 시즌 홈런왕이기도 한 김 선수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황인영(17) 군의 '특별한 약속' 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김 선수는 '훈훈한 홈런왕' 으로 불리고 있다.

바다 건너에서 전화로 당시 소감을 전한 김 선수는 사실 마지막 홈런을 쳐냈던 지난해 9월 30일 경기에 나서며 마음이 착잡했다. 소속팀인 한화는 포스트시즌에 나갈 4강 탈락이 확정됐고, 개인적으로 희망한 홈런왕 타이틀도 이날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을 추가하지 않으면 몇 경기 더 남은 라이벌 가르시아 선수(롯데자이언츠 · 당시 29호)에게 추월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한 백혈병 소년과의 작은 약속을 떠올렸고, 결국 이날 31호 홈런을 쳐냄으로써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다. 실제로 가르시아 선수도 이후 홈런을 하나 추가해 지난 시즌 30호 홈런을 기록했다.

라디오 사연 듣고 병원 찾아 특별한 만남, 그리고 약속

"제 경기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인영이와 한 약속이었기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김 선수는 소속팀 한화의 하와이 전지훈련을 앞두고 지난 1월 20일 인영 군을 찾았다. 홈런왕 등극을 축하하는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말이다.

김 선수가 인영 군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인영 군의 아버지가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이 있는 대전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 보낸 사연이 계기가 됐다.

"백혈병을 앓는 막내아들이 김태균 선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 선수는 지난해 여름 비로 홈경기가 취소된 날 대전 충남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인영 군을 찾았다.

홀로 사는 대전 지역 노인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왼쪽)와 류현진 선수.

뜻밖의 손님에 기뻐 어쩔 줄 모르던 인영 군에게 김 선수는 사인볼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홈런왕이 되세요"라는 인영 군의 기원에 "꼭 되마" 하고 약속했던 김 선수는 그 약속을 지킨 뒤 홈런왕으로서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다.

김 선수의 아름다운 선행은 이게 다가 아니다. 2001년 한화에 입단한 이래 매년 겨울이면 대전지역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연탄 배달을 하고, 아동보육시설인 '평화의 마을' 과 지역 아동교육센터인 '새나루공동체' 등에 선수단 모금으로 마련한 학용품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7년 말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에는 팬클럽 회원 30여 명과 함께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태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찡했다"는 그는 "무엇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선수가 선행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그냥 "어느 날부터였다"고 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때마침 구단도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구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해 마음의 눈을 뜬 김 선수는 지난해 홈런왕일 뿐 아니라 2001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이후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2003년엔 데뷔 3년 만에 30홈런 고지를 밟은 현존하는 최고의 거포다.

김 선수는 하와이 현지에서 팀 훈련을 하던 중 WBC 출전을 위해 하와이로 훈련하러 온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번 WBC에서 이승엽 선수의 자리였던 1루수를 이어받은 김 선수는 "지난번 WBC 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선배들이 쌓아올린 금자탑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에 임하는 마음에 부담도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번 WBC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더러 큰 활약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병역의무 면제 혜택을 받아 송구스러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게 큰 혜택을 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난 대회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승'을 다짐하는 김 선수는 대표팀 내에서도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재미있는 선수'다. 스스로 "처음 보는 사람에겐 약간 낯을 가리는 편"이라고 말하지만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머가 넘친다. 인영이 앞에서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변 사람 모두를 웃게 해주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마음이 따뜻하다 보니 팬 사랑 역시 듬뿍 받아 김 선수는 누리꾼 사이에서 '별명 신드롬'을 일으키는 이슈 메이커이기도 하다. 한 팬이 집계한 데 따르면, 김질주, 김방해, 김홈런, 김타점, 김슬라, 김벌렁, 김파브, 김샤방 등 별명이 무려 280개가 넘는다.

"별명이란 많은 팬들의 사랑으로 생기는 것이기에 별명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그는 "이번 WBC 대회 이후 '김 금의환향'이라는 별명을 얻고 싶다"고 희망했다.

향후 미국이나 일본 무대 진출을 꿈꾸는 김 선수는 일단 꾸준히 기량을 발전시켜 한화의 장종훈 코치나 삼성의 양준혁 선수가 세운 대기록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먼 훗날에는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유소년 야구 지원에 힘을 쏟고 싶다고.

"요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참 많아요. 잠시라도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한 번쯤 따사로운 손길을 건네는 '따뜻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있고 선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팬들에게 좀 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덧붙였다. "요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참 많아요. 잠시라도 관심을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한 번쯤 따사로운 손길을 건네는 '따뜻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G

글 · 박경아 기자

김태균 선수(제일 왼쪽 위)의 사인볼을 든 아이들.

조직정비 대타협 이룬 한국농어촌공사

노사합의로 임금 반납 구조조정 노사상생 첫 '씨알'

새만금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4시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회의실. 농어촌공사 노사 양측이 '공사 정원 15% 감축'이라는 인력 구조조정안을 놓고 마주 앉았다. 이날 회의의 두 주역은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종석 노조위원장. 분위기가 험악할 법한 사안이 걸린 협상장이었건만, 의외로 차분함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농어촌공사 노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지 22일 만에 구조조정 대타협을 이뤘다.

사실 중대고비가 된 것은 전날 치러진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 투표였다. 농어촌공사의 구조조정은 '피치 못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긴 했지만 노조원들의 반대가 드셀 경우 향후 인력 조정은 난감한 상황에 놓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 구조조정 찬반투표에서 놀랍게도 96%(해외근무, 병가, 출장 등으로 빠진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 투표)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투표자 5171명 중 찬성 4031명(77.6%), 반대 1082명(20.9%), 무효 58명(1.5%)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그동안 일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사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다. 또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일부 부담하게 되는 퇴직자 위로금 규모를 늘렸으며, '1직급 승진 퇴직'과 같은 비금전적 보상 방안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안에는 남은 직원들의 고통분담 범위가 당초 제시됐던 '전 직원 2008년 임금인상분 반납, 2급 이상 간부직의 12월분 급여 10% 반납'에서 한층 확대되어 2급 이상 간부직 급여 반납률이 30%로 늘어났으며 3급 이하 일반직도 12월분 급여 5%를 반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결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명예·희망퇴직 등을 통해 총 602명을 감축했다. 2008년 인력 감축 목표(590명)와 비교하면 계획

의 102%를 이룬 셈. 2011년까지 844명을 감축키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나머지 242명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앞서 2000년에도 800명을 줄이는 등 공사 출범 이후 최근까지 2418명을 감축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가 공사 가운데 가장 먼저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공사 내외부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공사 내부에서는 "다른 공기업이 10%인데 우리는 왜 15%냐"는 불만도 있었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다. 사실 농어촌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늘 공기업 개혁 대상에 올랐다. 자체 사업이 적어 대부분 예산을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데다 최근 신규채용이 없어 직원 평균연령 44세로 사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힘든 시기에 노사가 합심해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농어촌공사를 극찬했고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인력 감축 계획을 잇따라 발표, 농어촌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모델이 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측은 "인력 구조조정은 '경영선진화'의 일부분"이라며 마치 '구조조정이 경영선진화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했다.

연공서열 파괴, 자율경쟁 도입 등 혁신 또 혁신

지난해 발표된 경영선진화 방안에는 구조조정 외에도 능력을 중시하고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인사제도 혁신이 포함돼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5일 주요 부서장 83%를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 경력이 3~5년밖에 되지 않은 신참 2급 팀장에게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또 행정·기술직 간 교차 인사로 '소통 부재' 인사장벽을 과감히 걷어냈다. 22개였던 부서도 17개 부서로 간소화하고, 66개 지역본부는 36개 팀으로 개편했다. 향후 지사도 93개에서 70개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 채용을 늘려 여성 고용률은 현행 10%에서 15%로, 장애인 고용률은 2%에서 3%로 확대한다.

또 정부 의존을 줄이고 자립형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자산 매각, 민간과 해외투자 유치, 지방자치단체 사업 투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6000억 원가량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뉴타운 건설, 5대강 수계 통합 등 신규 국책사업에 4조 5607억 원을 투입하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역'으로 육성할 새만금산업단지 등 자체 산업에도 3조 3023억 원을 투자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83개 신·재생에너지 구축에도 1조 2816억 원을 쏟을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김종필 전략기획팀장은 "경영선진화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 작업을 지난해에 마치고 올해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두면서 시스템 정비, 상시퇴출프로그램 운영 같은 '소프트웨어' 실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사장 팀장학교를 운영하는 등 인적 역량 강화와 인재 발굴을 위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재정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어촌연구소(경기 안산시) 안에 조성된 농촌시범마을.

Interview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자립형 공사 위해 수익모델 발굴 역점"

"우리 공사는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화와 실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인력 구조조정에 노사가 합의하기까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다"며 "하지만 노사가 모두 변화의 필요성과 위기의식을 공유하다 보니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홍 사장도 12월분 급여 50%를 반납했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구조조정을 한 농어촌공사 사례가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임을 강조하는 홍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9월 17일 취임했다. 홍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자립형 공사'를 강조해왔다.

"우리 공사는 정책사업 비중이 98%에 달합니다. 정부에 기대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봅니다."

홍 사장은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해 재정 독립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사의 신규 수익사업이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국 3326개 저수지 개발에 들어갑니다. 농촌복지를 위해 농가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 밭 3모작 등의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홍 사장은 또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영농이 시작되는 4월까지 용수 관련시설을 모두 정비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우리 공사 명칭을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바꾼 것은 그간 개발 사각지대에 있던 어촌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향후 어촌 소득원 개발에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홍문표 17대 국회에 진출, 2004년 7월부터 줄곧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9월 17일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사람도 땅도 목이 탄다

"하늘탓만 하지 말고 근원적 대책 세워야"

#1 강원 태백시내 한 음식점

"화장실이 어디 있죠?"
"저쪽에 있는데요. 물이 안 나오니 볼일 보시고 바가지로 꼭 물을 부어주세요."

#2 태백시 모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

"예전엔 점심과 저녁까지 급식을 했는데, 가뭄이 심해져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난 뒤에는 저녁 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3 태백시내 인근 용연동굴 매표소 앞

"화장실이 어디 있죠?"
"동굴 입구의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가뭄으로 간이화장실이 폐쇄됐습니다."

태백시의 주 취수원인 광동댐으로 흐르는 골지천이 바닥을 드러낸 채 메말라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심정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극히 저조한 강수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태백시민들은 지독한 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적게는 하루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씩 제한적 급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물이 제때 안 나오면 수세식 화장실은 '푸세식'으로 변하고, 빨래도 헹굴 때를 제외하곤 깨끗한 물을 쓰지 못한다. 고원지대라 더 추운 태백이지만, 시민들은 온수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이어 겨울까지 가뭄이 계속되자 태백시는 올해 1월 중순부터 제한급수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하루 한 번 실시하던 제한급수마저 이틀에 한 번꼴로 변경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가뭄이 더 심해지면 하루 한 번 나오던 물이 이틀에 한 번 나온다고 합디다.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물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빨래도 한 번 쓴 물을 다시 써야 하고….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지…."

태백시 삼수동에 사는 김진택(62) 씨는 마른하늘을 가리키며 원망스런 표정을 지었다. 공영주차장 관리원인 그는 "가뭄 때문인지 올해는 관광객도 줄었다"고 했다. 매년 겨울이면 눈 내린 태백산 설경을 보러 많은 등산객이 찾았고, 눈축제와 스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볐는데 이번 겨울엔 관광객들의 발길이 예년에 비해 뜸했다는 것.

태백산 눈축제로 유명한 태백시는 올해 극심한 가뭄 탓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물을 끌어다 인공눈으로 겨우 축제를 치렀다고 한다.

2월 27일. 4년 만에 다시 찾은 태백시의 풍광은 전혀 달랐다. 2005년 2월 말, 태백산 등산을 위해 찾았던 태백시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나무들엔 눈꽃이 피어 장관을 이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응달에 잔설이 조금 남아 있을 뿐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그대로 드러내 휑한 느낌마저 들었다.

제한급수 2개월째, 손 씻는 것조차 힘들어

태백시내 문화예술회관 근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미영(44·여) 원장은 "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들다"고 했다. 그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는 제한급수 때 고무 물통에 물을 받아놓고 쓰는데 아침 출근 때마다 찬물을 데워 세수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물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물 데워 세수하고 머리를 감아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어린이집) 아이들은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물을 데워야 하는 것도 그렇고, 대소변을 보면 물을 계속 부어줘야 하는 것도 그렇고…. 물이 안 나오는 불편은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짐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린이집 복도에는 2ℓ짜리 생수 6병이 한 묶음으로 돼 있는 생수 100여 묶음이 들어차 있었다.

"그래도 먹는 물을 많이 지원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신 것 같아요."

600병이나 되는 생수를 급수차에서 어린이집에 내려놓는 것은 군 장병들이 도왔다고 한다. 이 원장은 "태백에는 물난리가 나도 작게 나고, 가물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올 가뭄은 유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태백시는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조차 물을 퍼올려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왼쪽)
광동댐 3개 취수문 가운데 2곳이 물 위로 올라와 있어 가뭄의 심한 정도를 짐작케 하고 있다.

가뭄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태백시민들 사이에서는 '태백산 정상 천제단 주변 돌담을 사이비 교주가 무너뜨려 액운이 들어 비가 안 온다' 느니, '황지연못을 보수하면서 작업하던 인부가 연못에서 나온 구렁이를 잡아 죽여 그렇다'는 등 갖가지 근거 없는 풍문까지 나돌아 가뭄에 지친 민심이 더욱 흉흉해졌다.

제한급수가 시작된 이래 가뭄으로 고통받는 태백시민들을 위해 2월 말까지 전국 각지의 기관 단체가 생수 200만 병을 보내줬다. 그 덕에 주민들은 먹는 물 고통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이었다.

태백관리단에서 광동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골지천이 따라 흐르고 있다. 하지만 골지천은 강바닥을 훤히 드러낸 채 메말라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갈로 된 도로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화전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변경희(33·여)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생수 6병을 2, 3일에 한 번꼴로 지급해준다"며 "부족하긴 하지만 식수 불편은 덜었다"고 말했다.

변 씨는 "제한급수도 오전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하고 저녁에도 6시에서 9시까지 더 나온다"며 "출퇴근 시간대에 물이 나와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고지대와 저지대가 혼재한 태백시는 제한급수 시간이 지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지대의 경우 급수시간대는 물론, 하루 종일 적은 양이긴 하지만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 반면 고지대는 제한급수 때에도 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저층에서는 물이 비교적 잘 나오지만, 고층에는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했다.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황실 직원 박영조 씨는 "제한급수 시간에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고지대에는 비상급수차량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극심한 태백시 가뭄 피해는 예년보다 턱없이 부족한 강우, 강설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상수원으로 취수하고 있는 광동댐 저수위가 크게 낮아져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태백 인근 정선군이나 영월군 등도 가뭄으로 고통받는 건 마찬가지지만, 태백시보다 정도가 덜한 이유는 자체 저수시설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관리단에 따르면, 광동댐에서 취수해 하루 배분하는 용수는 태백시가 4만 5000㎥이고, 정선군이 1만 2000㎥, 삼척시 1만㎥, 영월군 3000㎥로 태백시의 광역상수도 의존율이 월등히 높다. 태백관리단은 광동댐 저수율이 23%로 낮아지자 지난 1월 15일부터 공급량을 50%까지 대폭 줄였다. 태백시가 제한급수를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제한급수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계속돼 댐 저수위가 갈수록 낮아지자 태백관리단에서는 급기야 광동댐에 비상취수시설을 설치했다. 광동댐에 설치된 세 곳의 취수시설 가운데 두 곳은 이미 물 위로 드러났고, 남아 있는 한 곳의 취수시설도 곧 물 위로 드러날 상황에 처해 저수지 한복판의 물을 끌어다 공급하기 위해서다.

태백관리단에서 광동댐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골지천이

따라 흐르고 있다. 하지만 골지천은 강바닥을 훤히 드러낸 채 메말라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갈로 된 도로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수자원공사 강원본부 함영근 차장은 "광동댐에 설치한 비상취수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해갈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비상취수시설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용수를 취수하게 되면 댐 저수지 퇴적물 등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 물까지 취수

태백시내 중앙에 자리 잡은 황지연못 주변 풍경은 태백시의 심각한 용수난을 실감케 했다. 부족한 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의 물까지 취수하고 있었던 것. 황지연못에서 급수차량에 취수를 하고 있던 한 인부는 "16t, 20t 차량이 한 팀을 이뤄 2교대로 하루 5번과 6번씩 총 22차례 황지연못 물을 취수해 정수장으로 실어 나른다"고 했다. 한 태백시민은 "루사 같은 큰 태풍이라도 한 차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뭄으로 겪는 고통이 오죽하면 자연재해의 대명사인 태풍까지 기다릴까 싶었다.

태백에서 승용차로 20여 분쯤 달려 두문동재 터널을 지나면 정선군이 나온다. 긴 터널을 지나자마자 도로 한쪽에 '비상급수 중'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긴급급수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정선군의 고지대 주민들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고한읍으로 들어서자 사정은 조금 나아 보였다. 개울가에 적은 양이지만 냇물도 흐르고 있었다.

고한읍내의 한 가게에 들러 급수 사정을 물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물이 나온다"고 했다. 비록 제한급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태백시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어보였다. 그러나 태백과 정선의 극심한 가뭄은 인근 영월군에서조차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한여름 래프팅으로 유명한 동강 역시 '어떻게 저곳에서 래프팅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강은 바닥을 드러낸 채 말라 있었다. G

글 · 사진 구자홍 기자

정선군은 그나마 태백시에 비해 물 사정이 나은 편이다.(위)
태백시는 전국에서 지원한 생수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황재혁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관리단장 "광동댐 증설 또는 보조댐 신설해야"

태백시에는 검룡소와 황지연못 등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횡으로 종으로 가르며 대지를 적시는 민족의 젖줄과도 같은 대표적인 두 강이 발원한 태백시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황재혁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관리단장은 "태백시는 고산지대인 데다 석회암층이 두껍고 탄광개발 등으로 저류 환경이 열악하다"며 "비록 비나 눈이 와도 산악이 급경사로 이뤄져 있어 빗물이 빨리 빠져나가 버린다"고 했다. 그는 "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비교적 가뭄피해가 적었다"며 "눈이 오더라도 녹아 취수장으로 유입되는 시기는 3, 4월이 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태백시민이 처한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백관리단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황 단장은 "태백은 지하수나 하천 취수 등 대체 수원도 적은 편"이라며 "올해 최악의 가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동댐에 비상취수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가뭄이 길어지면 광동댐 비상용수를 활용하고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거나 또 필요하면 멀리 있는 물을 운반해서라도 6월 말까지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먹을 물조차 급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태백관리단 건물 로비엔 수자원공사가 확보한 생수 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다.

황 단장은 "열악한 저수 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을 세우려면 기존 광동댐을 증설하거나 보조댐을 건설하는 등 추가 수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는 만큼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 저장 시설 늘려야 국가 경쟁력 생긴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양질의 음식물을 적당량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관리해야 한다. 즉, 음식물을 지나치게 많이 혹은 적게 섭취하고 운동량이 과다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기 쉽다. 이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다. 물 관리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해볼 수 있다.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발생하고 너무 적으면 가뭄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학적 요인과 기상수문학적 요인으로 홍수와 가뭄 등 수재에 아주 취약하다. 지형학적으로는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여서 대부분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다. 이 때문에 하천수가 바다로 빨리 빠져나가 물을 확보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수문학(水文學)적 요인으로는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따른 장마와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집중호우에 의해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전체 호우의 약 85%가 6~9월 홍수기에 집중된다. 연도별로는 614mm에서 2300mm까지 강수량의 변화폭이 커서 가뭄과 홍수관리에 취약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토사유출도 심해 하상퇴적이 하천의 통수단면 저하를 초래해 풍수해 피해를 가중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 및 지형적 영향으로 해마다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도시민들은 아직 물의 소중함 못 느끼는 듯

우리나라의 물 부족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 없이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물은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희박하다. 이는 '물은 곧 에너지' 라는 경제재로서의 물에 대한 이해부족 탓일 수도 있고, 댐을 건설하고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수자원 시설이 앞서 투자돼 평소에 물 부족을 느낄 수 없게 됐거나 물값이 너무 저렴해 일상생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동아DB

우리나라는 전체 호우의 약 85%가 6~9월에 집중된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에 따른 장마와 폭우는 자주 홍수를 유발한다.

에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여건의 탓이 아닌가 한다.

가뭄 등 물 부족으로 생기는 사회적 피해는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뿐만 아니라 질병의 증가, 사회불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질오염 심화에 따른 처리비의 증가, 농작물의 수확 감소, 생산중단에 의한 손실과 그에 따라 빚어지는 물가상승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관련 산업으로 파급되어 물 부족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의 전반적인 약화로 그 범위가 펴져나갈 수 있다.

과거 기록을 분석해보면 가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수자원의 편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재해에 대한 취약성은 갈수록 증가해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이를 전망이다.

가뭄 극복은 정부의 노력만으론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모두 물을 아껴 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이에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뭄을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가뭄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가뭄 때 기존 댐과 저수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용수공급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저수지 용도를 필요에 따라 전환해 물 사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물 소비활동의 억제와 제한급수, 절수시책의 홍보 및 교육방안 등을 강구해볼 수 있다.

중장기 가뭄대책으로는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저장하는 시설물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단일목적 댐보다는 다목적댐을, 대규모 댐보다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이 긴요하다. 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중소권역별로 수자원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가뭄극복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광역상수도를 연결하는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지형여건상 수자원시설 입지가 나쁜 지역은 기존의 소규모 농업용 저수지나 댐 등을 연결해 이용하고 이들을 대하천이나 대규모 댐과 연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물 부족에 따른 신규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 등 수자원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차이로 유발되는 비용손실이 크다. 하지만 대립적인 의견을 지녔다 하더라도 물의 절대적인 소중함과 미래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견이 달라도 서로 물에 관한 한 같은 운명과 목표를 지녔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겠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물 부족과 가뭄재해를 슬기롭게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물 관리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가뭄극복은 관련기관만의 노력만으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정부 관련부처, 주민이 긴밀히 협조하고 동참함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가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모두 물을 아껴 쓰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서로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마음, 적극적으로 가뭄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시련이 아닌 선물로 만드는 일은 신의 영역이라기보다 사람의 몫이다.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세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다. G

글 · 박진혁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책임연구원

동아DB

대통령 경호관 24시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 자부심

대통령 경호관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슬로건으로 내건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는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 산다. ‘국가원수의 절대안전’은 대통령 경호관들의 존재가치이자 그 어떤 이유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5개의 태극무늬가 무궁화를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휘장은 경호처의 기능과 역할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휘장 내부의 빛을 발하는 무궁화는 대통령과 국가를 상징하고, 무궁화 주변을 빈틈없이 감싼 태극무늬는 경호관들의 역동적인 경호활동을 상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째 되던 2월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두 명의 경호관을 만났다. 탄탄한 몸과 깔끔한 용모가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느낌을 줬다. 경호관들에게서 전해들은 경호관의 일상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긴장의 연속이었다.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는 경호관의 세계를 들여다보자.

자신의 몸을 던져 국가원수를 지킨다

대통령 경호관들의 무술이나 사격 훈련은 일반 상식과는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무술 연마는 나를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경호관의 무술훈련은 국가원수를 대신해 죽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격 자세도 은폐물을 최대한 이용하는 군인이나 경찰과 달리, 경호관들은 똑바로 선 채 어깨를 활짝 벌려야 한다. 자신의 몸을 경호를 위한 방패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관들의 시범훈련을 관람한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인사말을 통해 “경호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임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경호관은 경호 근무자 외에 대부분 새벽 6시면 연무관에 들러 체력단련을 한 뒤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경호관들에게 체력단련은 기본이다. 경호처는 모든 경호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반의 준비가 돼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년에 두 차례 혹독한 측정을 실시한다. 이 때문에 경호관들은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연무관에 들러 ‘죽는 훈련’ 혹은 체력단련을 한 시간씩 한 뒤에야 출근한다.

한 경호관의 이야기다. “경호 업무는 1년 365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비번이라 할지라도 이동거리와 시간을 감안해 연락이 오면 금세 달려갈 수 있는 곳에 머뭅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죠. 주말에도 휴가를 내야 쉴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휴가를 내야 제대로 쉴 수 있다? 경호관들이 얼마만큼 긴장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지가 ‘주말 휴가’에서 잘 드러난다. 언제 어디서든 준비돼 있어야 하는 경호관들과의 이날 만남 역시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인 곳에서 이뤄졌다.

경호관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

‘대통령 경호’하면 일반인들은 TV 화면 등을 통해 접하는, 대통령 주변에서 동행하며 신변 안전을 지키는 경호관의 모습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경호 업무는 보이는 것 이상으로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경호처 휘장

3월 1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경호관들은 한 치의 빈 틈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는 선발대가 먼저 출동한다. 행사장에 도착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씩 행사장 곳곳을 직접 돌며 철저히 점검한다. 손과 발로 직접 행사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경호관들 사이에 선발대는 '손발대' 로 통한다.

이뤄진다. 폭발물 탐지나 식음료에 대한 검측과 검식 등 안전관리는 기본. 경호 취약요소나 위해요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경호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경호관 취재 과정에서 경호팀의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는 선발대가 먼저 출동한다. 출동 전 회의에서는 경호 전반에 걸쳐 사전 조율을 통해 각자 임무를 부여받는다. 행사장에 도착해서는 두 번 세 번 네 번씩 행사장 곳곳을 직접 돌며 철저히 점

대통령 경호관에겐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관.

1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경호무도 및 상황조치 시범'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경호관의 임무를 여실히 보여줬다.
2 대통령 경호관들은 한 순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3 카타르 왕실경호대 경호요원들이 대통령실 경호처가 주관하는 국제경호안전교육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받고 있다.

검한다. 손과 발로 직접 행사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경호관들 사이에 선발대는 '손발대'로 통한다.

밤늦게까지 점검이 이뤄지고 나면 경호팀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중간고사'를 치르기도 한다. 경호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얼마나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경호구역에 대해서는 나무나 돌의 위치는 물론 빈 공간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하지 못하면 '지적' 받기 일쑤다. 다시 점검하고 숙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임무를 숙지해야 하다 보니 초보 경호관의 경우 경호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자신의 임무가 적힌 노트가 너덜너덜해진다고 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 행사 관계자 등과의 경호 관련 협의도 끊임없이 이뤄진다. 경호처 자체 인력만으로는 완벽한 경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호관은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경호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협조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빈틈없는 경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호관은 해당 기관과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호 업무 특성상 경호관에게는 체력, 무도, 사격 등 대통령 신변 경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 외에도 '소양'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인성'은 채용 단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다. 경호관 후보자 개개인이 살아온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진다고. 물샐 틈 없는 경호는 경호관 채용 과정에도 예외가 아닌 셈이다.

세계가 실력 인정하는 대한민국 경호처

국가원수 가장 가까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관들은 경호도 중요한 외교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 외국 경호관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를 숙지하는 것도 경호관들이 겸비해야 할 중요한 소양이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경호안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대규모 국제행사 경호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동국가 등 외국의 경호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호팀의 선진 경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카타르와 베트남 경호요원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돼 연수를 받기도 했다.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경호안전통제단'을 꾸린 경호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인 다자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일찌감치 '손발대' 역할에 나선 것이다. 경호안전통제단의 한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호안전 활동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완벽한 경호안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완벽하고 세련된 경호업무 수행으로 각국 정상들에게 선진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구자홍 기자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물부족 · 물오염 · 물난리 없는 내일을 위해
4대강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14조 원 투입, 일자리 19만 개 창출!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이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강변, 맑은 물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지킴이

오염 감시 부릅뜬 눈 부유물 제거 날렵한 손

강 바람을 타고 밀려드는 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2월 말, 경기 여주군 북내면 덕사리 금당천변에는 여주대교를 돌아 흐르는 한강 물줄기가 마른 갈대숲을 헤치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벌써부터 봄맞이 채비를 마친 강태공들이 갈대숲 사이를 비집고 앉아 강물에 낚싯대를 드리운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정겨운 풍경이다. 유명 낚시터는 아니지만 도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조용한 장소를 용케 찾아낸 그들에겐 이만한 장소도 없겠다 싶다.

하천 주위로는 논밭이 사이좋게 들어서 진짜 오랜만에 다시 찾은 고향의 냄새를 진하게 풍긴다. 풍광에 취해 찬바람이 매서운 줄도 모르고 서있자니 저 멀리 강변을 따라 이곳의 강태공들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며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받아적고, 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파란 유니폼의 남녀 한 쌍이 눈에 들어왔다. 경기도 여주의 한강지킴이 한옥희 씨와 이용환 씨다.

한 씨와 이 씨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주민이다. 한 씨는 오래 전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 '여주의제'에서 진행하는 3년 과정의 환경해설코스에 등록해 공부를 하기도 했다. 여주의제는 여주지역의 의제로, 의제에서는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를 모색하는 일을 한다. 유엔에서 제안해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마다 '지역의제 21'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마을 환경 지킨다는 자부심과 애착으로 무장

한 씨는 섬진강 환경지킴이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5대강으로 확대된 2007년부터 쭉 한강환경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씨는 이제 막 한강환경지킴이를 시작한 신참이다. 고향은 여주지만 직장을 찾아 도회지로 떠났다가 3년 전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싶은 욕심에 과감히 귀향했다. 동네 주민이긴 하지만, 맑고 깨끗한 한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열혈 한강팬인 셈이다. 물론 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엄연한 계약직 공무원이다. 환경부 산하 5대강 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하천오염행위 감시와 계도,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지킴이를 운영해오고 있다.

5대강 지킴이 사업은 관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한강환경지킴이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강 주변으로 낚시를 하러 온 이들을 계도하는 것이다.

사업인 만큼 환경지킴이는 정부 차원의 교육과 활동을 보장받는다. 분기별로 4월과 6월, 9월, 11월에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도 받아야 한다. 또 실제 활동에 필요한 현장교육 위주의 월간교육을 받는다. 복무관리 규정과 점검 시스템 역시 엄격하다. 현재 한강 환경개선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한강환경지킴이는 40여 명. 이들은 북한강권역(의암댐~팔당호)과 남한강권역(충주조정지댐~팔당호), 팔당권역(팔당호와 왕숙천, 경안천, 청미천 등의 지류지역)으로 나뉘어 2명씩 조를 이뤄 움직인다.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지역 주민이기에 환경지킴이라는 자부심과 애착이 남다르다.

한강환경지킴이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계도, 환경정비 등의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팔당호 부유물을 제거하고 연꽃을 심는가 하면 경안천과 왕숙천의 어종을 조사하는 등의 특화사업도 성과를 거뒀다.

한강환경지킴이는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계도, 환경정비 등의 활동에 그치지 않는다. 팔당권역에서는 팔당호 부유물을 제거하고 연꽃을 심는가 하면 경안천과 왕숙천의 어종을 직접 조사하는 등의 특화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 남한강권역 역시 지역축제에 참가해 홍보활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을 꽃길로 바꾸는 성과를 일궈냈다. 북한강권역도 불법낚시구역을 꽃밭으로 가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낚시꾼들이 솔선해야 깨끗한 한강 살린다"

한강환경지킴이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 강으로 낚시를 하러 온 이들을 계도하는 것이다. 불법 낚시 행위를 막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소각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세차를 하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도 살피고 계도한다. 물론 이들은 어디까지나 계도와 권유활동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처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 초기엔 어이없는 일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상소리를 하며 되레 화를 내거나, 눈앞에선 알겠다며 건성으로 대답한 뒤 돌아서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요즘엔 자주 마주치는 낚시꾼들과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이런저런 근황도 전할 만큼 친해졌다. 처음엔 이들의 이런 활동에 낯설어하던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다. 활동이 지속되고 정착되는 만큼 주민 참여와 호응도도 높아졌다.

낚시꾼들을 상대로 계도활동을 진행하며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 씨와 이 씨에게 가장 힘든 점을 물었다.

"글쎄요. 처음엔 계도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죠.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간섭인가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부담감이 많이 덜해요. 이 근방에 오시는 분들은 한강환경지킴이가 무엇인지, 또 한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아니까요."

한강환경지킴이 활동 3년째인 한 씨는 처음과는 여러 모로 달라진 낚시꾼과 주민들의 반응을 떠올리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도 힘들죠. 날씨가 몹시 추운 날엔 낚시꾼들도 잘 다니지 않아 차라리 괜찮은데 약간 쌀쌀해도 날씨가 풀리는 이맘때는 많이들 찾아오시거든요.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강바람을 쐬다 보면 바람 막아줄 공간 하나가 아쉽습니다. 여름엔 더 심해서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없이 돌아다녀야 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날씨만으로도 그들의 활동이 얼마나 고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맑아진 한강만큼이나 환하다. 한강환경지킴이들은 지금처럼 계도와 환경정비 활동을 계속하면서 점차 주민교육 쪽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어느 정도 활동이 정착되면 주민들의 의식 개선과 주민 참여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동으로 더 맑고 건강해진 한강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김지은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환경부 산하 5대강 유역환경청은 주민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숲 시범학교로 선정된 인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그린 교육' 실천하는 친환경 학교들

빗물 재활용하고 지열로 냉난방

3월 2일 서울 강북구의 미양중고등학교에 첫 신입생이 입학했다. 미양중고 개교는 아이들을 멀리 통학시켜야 하는 삼양동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는데, 서울시내 학교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아 이목을 끌었다. 이 학교는 연면적 1만 3533㎡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고, 중학교 18학급과 고등학교 24학급이 들어섰다. 다목적 강당과 컴퓨터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이번에 미양중고가 받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 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미양중고는 2006년 설계 당시 예비 인증, 2007년 착공을 거쳐 올해 2월 28일 준공 완료 이후 본 인증을 받았다. 이 학교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 등을 해결한다. 에너지뿐 아니라 지하에 빗물을 모아 친환경 연못으로 활용하는 물 순환도 염두에 뒀다.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서정중학교와 성사중학교도 문을 열었다. 이 두 학교도 한국교육환경연구원으로부터 '친환경 우수 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고양시에서는 첫 인증을 받은 행신동 아람초등학교까지 포함해 3개의 친환경 학교가 개교한 셈이다. 이 두 학교에는 친환경 건축물 외에도 실내외 녹지, 생태연못, 빗물이용 시설 등이 조성됐다.

교육청별로 저탄소 녹색학교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신설 학교에는 친환경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들이고, 기존 학교에는 탄소저감 여건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에코 그린스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친환경 시설 인증 내용을 포함한 교육시설 설계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교육청 가운데 저탄소 녹색학교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

서울시내 학교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강북구 미양중고등학교(왼쪽).
경기 남양주시의 광동중학교는 운동장 전체가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은 충남도교육청이다. 올해 충남도교육청은 4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설비, 태양열 온수설비, 지열 냉난방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6개 학교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냉난방시설을, 기존 17개 학교에는 태양열 온수설비를 설치한다.

이러한 학교들은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에 부담을 덜 가게 하는 것 외에도 시설 운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이후 친환경 학교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지원과는 시도교육청 시설과와 협의해 3월 중으로 전국 각급학교의 신청을 받아 친환경시설 지원의 윤곽을 잡을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학교숲 시범학교에서 원두막 수업도 진행

본격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기 이전에도 도심 학교에 숲, 생태연못,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녹색학교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교육당국, 지역사회, 해당 학교가 마련한 재원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다가 2006년이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교육시설 사업은 새롭게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건강을 위해서도 친환경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내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에서는 친환경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1년까지 60여 곳의 친환경 어린이집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호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지난해 개원한 송파구 잠실어린이집은 친환경 자재와 기구를 사용하고, 유기농 채소 식단을 제공한다. 정원 140명 가운데 아토피 어린이 30명과 장애 어린이 9명이 들어가도록 정해놓은 점도 특징이다. 잠실어린이집은 인근 학부모들의 열띤 호응을 얻어 지난해 5 대 1이 넘는 입학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성북구 금일어린이집이 비슷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개원했다.

민간 부문에서 녹색학교 조성에 참여한 형태로는 산림청, 시민사회단체, 기업체인 유한킴벌리가 함께한 '학교숲 운동'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사례가 있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벌써 6년째 '학교숲 시범학교'를 공모해왔는데, 그동안 인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 등 700여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2006년 시범학교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광동중학교에서는 나무 사이의 원두막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은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속에 자리 잡은 북한산초등학교의 경우 "시내 학교에 다니는 또래 아이들보다 밝고 적극적이며,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이곳을 거쳐 간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단순히 좋은 환경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친환경 시설을 이용한 교육과정이 병행되기 때문이다.

교과과정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사회, 과학, 실과 등 광범위한 과목에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에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까지는 교육과정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한상윤 장학관은 "교과서를 수정할 때 조금씩 환경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초중고교에서 주교재나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교과서 5종을 발간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발달 단계에 따라 학년별로 '어린이 초록마을' '어린이 초록나라' '어린이 초록세상'을 사용할 수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전 학년에서 각각 '환경탐구'와 '생태와 환경'을 배우도록 했다.

자원과 에너지 순환이 이뤄지는 교실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연친화적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지 기대된다. G

글 · 김희연 객원기자

도심에 주차장 없는 빌딩 건축 가능

건축비 부담 덜고 교통혼잡 줄인다

건축주 이건웅(가명 · 61) 씨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도심 재개발지역에 빌딩을 신축하려고 준비해왔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주차장법을 개정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건설사와 상의해 지하층의 건축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지하 2~4층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굳이 3개 층을 주차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꼭 필요한 주차시설만 만들고 나머지는 음식점 등 판매시설과 창고시설로 전환해 임대하기로 했다. 그로서는 수익시설이 늘어나 건축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씨의 경우처럼 주차장법 개정으로 대도시 도심 상업 · 업무지역에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도심지역의 차량진입을 억제해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 입법예고, 4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심 주차장 상한선을 현실화해 도심 교통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주차상한제란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 · 업무용 건물에 적용된다.

주차장법 개정 핵심은 '도심 주차장 상한선' 현실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설치기준(건축면적 150㎡당 1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그 사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연면적 1만 5000㎡의 빌딩을 건축할 경우 설치기준은 100대지만 상·하한 규정에 따라 50~60대의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의 주차장 최

연합

극심한 체증을 빚고 있는 서울 도심거리. 주차장법 개정으로 차량의 도심 진입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정경택 기자

주차장법 개정으로 대도시 도심 한복판에도 주차장 없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도심 건물의 지하주차장.

저 설치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자유롭게 주차대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즉, 주차장 없는 건물의 건축도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장애인 및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또 지자체가 설치기준 대비 상한선을 너무 높게 책정(서울 부산 60%, 대구 80%)해 주차장 축소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은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상태가 평일 하루 평균 3회 이상 발생할 경우다.

아울러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례 위임범위도 확대된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 시설물별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효율적인 주차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주차장 1면 사라지면 年 900만 원 교통혼잡비용 감소

화물차의 일시 주차가 빈번한 집배송시설과 자가용 주차가 많은 공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들 지역은 현행법상 동일하게 150㎡당 1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주차수요 특성이 다름에도 운수시설로 분류돼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을 바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송석호 사무관은 "서울을 포함한 7대 광역시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상업지역(105㎢)에서 준주거지역(56㎢)으로 확대하면 대상지역이 기존보다 5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자율적인 활성화가 미흡할 경우 도심혼잡구역에 대해 주차상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주차장을 축소하게 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1997년 주차상한제 도입 이후 5456면의 주차장이 줄어 연간 487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혼잡비용의 0.8%를 차지하는 것이다. 도심 주차장 1면이 줄어들면 연간 900만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건축주의 건설비용 인하효과도 있다. 국토해양부가 2007년 준공된 도심 빌딩의 지하주차장 건설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1면당 2000만~4000만 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물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지하 4층, 지상 26층 업무용 빌딩을 짓는 데 총공사비가 3300억 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386억 원으로 전체 건설비용의 12%에 달한다. 또 대우건설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지하 5층, 지상 35층 업무용 빌딩을 짓는 데 3400억 원이 들었는데 287억 원(8%)이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쓰였다. 지하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공사비의 5~10%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G

글 · 김정태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기자

선진국의 도심 주차장 제도

미·영, 지역특성 살려 주차시설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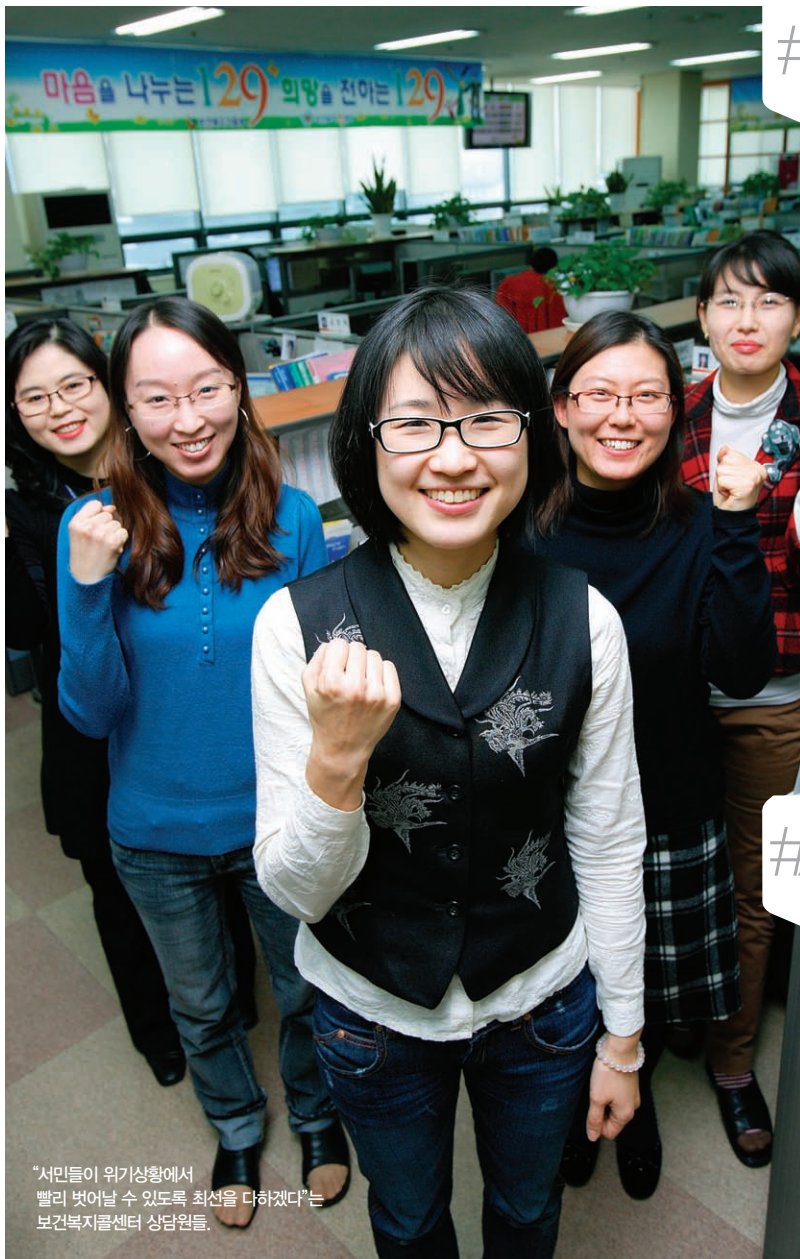
선진국들은 도심 빌딩의 주차장에 대해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차상한제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토지특성 및 시설물 용도, 교통 접근성, 입지요건을 고려해 각 도시별 실정에 맞게 세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건물에 대해 최소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되 예외적으로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한제는 상한방식(Ceiling Limit)와 총량방식(Freezing Limit)으로 구분한다.

상한방식은 일정지역에 대해 주차시설의 공급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나라 주차상한제와 비슷하다. 총량방식은 시행지구에 대해 허용 총량을 설정한 후 한도 이상의 추가적 주차시설 설치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미국 보스턴과 포틀랜드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지침으로 부설주차장 최소·최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런던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운용 중이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로 파킹(Zero-Parking)시설 건축도 가능토록 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려는 상한제 최소 기준을 없애는 것과 유사하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생계지원에서 건강 상담까지 희망 도우미가 챙깁니다

"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들.

#1

보건복지콜센터 소득보장상담반 박미정 상담원은 콜센터 업무를 해온 지 3년이 넘었다. 박 상담원은 그동안 접한 수많은 고객들 중에서도 최근에 긴급의료비 지원 상담을 했던 한 중년 남성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정책이슈로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고객은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전화한 목적도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의료비 지원 때문에 전화했다'고 한 마디 하셨어요. 좀 더 편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고 의료비 지원을 요청한 경위를 여쭸더니 가족들이 모두 지방에 있고 혼자 올라와서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 겨우 일자리가 생겼는데 출근길에 차에서 내리다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척추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이 몇 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긴 한숨을 내쉬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곧바로 긴급의료비 지원 접수를 해드렸어요. 신청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갈 테니 지원 결정 받으시고 수술도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고객은 접수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워하셨어요."

#2

"2006년 9월부터 학원을 운영하다 어려움이 많아 결국 지난해 10월 폐업신고를 했어요. 남편은 오래 전부터 간경화로 치료받고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시부모님은 치매 진단을 받아 누워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지만 질병에 걸린 남편과 치매를 앓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의 생계를 떠안아야 하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연립주택이 있지만 시어머니가 치매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못해 처분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더욱이 남편의 형제들도 주택 처분을 반대하고요. 문제는 그 연립주택 소유 부분이 재산으로 인정되고, 현재 미취업 상태임에도 대학을 졸업한 딸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는 연중 무휴로 상담받고 있다.

긴급지원상담반 박선미 상담원은 지난 1월 한 중년여성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마음이 아팠다. 딱한 사정을 듣다 보니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막막할 것 같았다. 박 상담원은 한 남자의 아내이자 어머니요, 며느리로서 사면초가에 빠진 고객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희망의 전화 129'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신속하게 고객의 상황을 정리해 관할 지자체로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했어요. 나중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을 듣고서야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해드린 고객이 혜택을 받게 됐을 때 가장 기쁘고 뿌듯해요."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보건복지콜센터(129콜센터)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129콜센터에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895건이던 상담 건수는 올 들어 5461건으로 늘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는 전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2만 7772건이던 긴급복지지원 상담 건수는 올 들어 이미 2만 8000여 건(2월 23일 기준)에 달했다.

하루 평균 5461건 상담 … "24시간도 모자라요"

긴급복지지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갑자기 발생한 위기상황 때문에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긴급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가정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이에 해당한다.

이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이 129콜센터로 몰리면서 103명의 상담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365일 24시간 3교대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것. 이 때문에 퇴근이 한두 시간 늦어지고 주말 근무도 잦아졌지만 상담원 중 어느 누구도 불만을 입에 담지 않았다. 상담원들은 오히려 "사정은 너무 딱한데 요건에 맞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는 고객을 만나면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 5일 129콜센터를 찾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원의 고충을 체험하면서부터 이곳에선 '신문고'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129콜센터 김은호 주무관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상담 건수는 260만여 건으로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지원 중 의료지원 상담이 많았으나 최근엔 생계지원 관련 상담이 현저히 늘었다"며 "특히 실직자나 자영업 폐업자 같은 30, 40대 신빈곤층의 전화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인숙 긴급지원상담반장은 "요즘 들어 당장 자살하겠다는 사람을 다독여 설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아프고 힘든 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국민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29콜센터로 상담이 접수되면 이름과 나이, 소득, 자녀 유무, 직업, 연락처, 사연 등이 해당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통보되고 이들의 현장조사를 거쳐 긴급복지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은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며 단기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129콜센터로 상담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긴급지원은 재산이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1인 73만 6268원, 2인 125만 3645원, 3인 162만 1779원, 4인 198만 9914원 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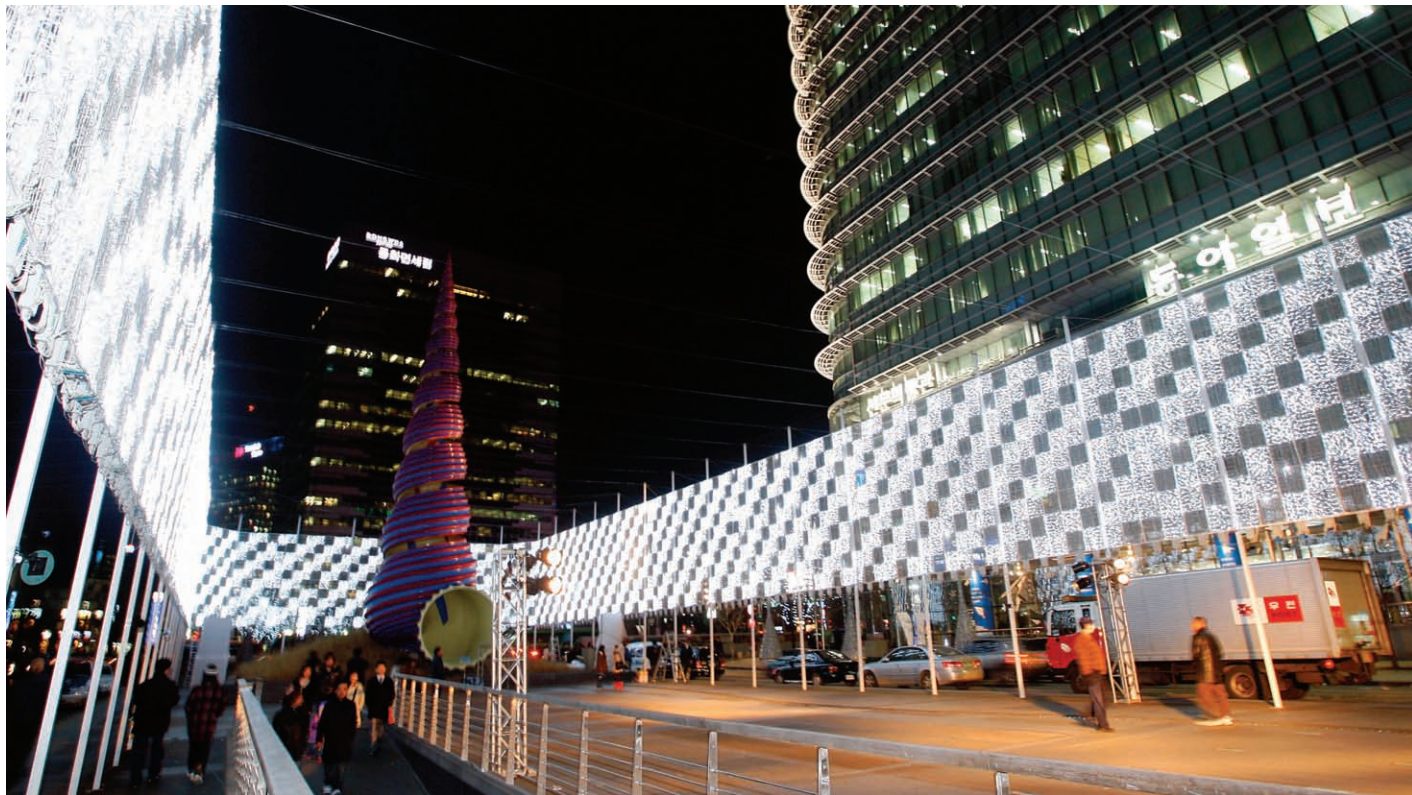
129콜센터 양윤선 센터장은 "행정지원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본다"며 "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서민들이 위기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송기평 인사이드저널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긴급지원 상담 : 365일 24시간
- 인터넷 홈페이지 : www.129.co.kr

TIP

전국 어디서나 '129'만 누르세요!

보건복지콜센터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언제든지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국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 11월 '희망의 전화 129'와 함께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소득보장상담반(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가족정책, 국민연금) △복지서비스상담반(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인구정책,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제도, 아동·청소년복지, 보육정책) △건강생활상담반(보건의료,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건강정책, 노인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긴급지원상담반(긴급복지지원, 아동학대, 노인학대, 청소년상담, 자살, 알코올, 응급의료) 등 총 네 분야의 상담반으로 나뉘어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한 달간 열린 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 빛 축제에서 LED가 청계광장을 화려하게 밝히고 있다.

형광등 시대 'OFF' LED 시대 'ON'
(발광 다이오드)

꿈의 광원, 발광다이오드(LED · Light Emitting Diode)가 몰려오고 있다. 그 기세를 보면 가히 60년 만의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1879년 백열전구가 개발됐고 1938년 형광등이 상용화한 점을 감안하면, 반세기가 흘러서야 인류는 또 다른 조명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LED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화합물 반도체의 하나로, 수명이 백열등보다 최대 100배 길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10분의 1에 불과해 꿈의 광원으로 불린다. 또 형광등같이 가스필라멘트, 수은 등 환경오염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이어서 교체와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더욱이 일반 전등이 110~220V 전류를 사용하는 데 반해 LED는 3V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감전 우려도 적다. 이뿐인가. 백열등은 투입한 전기의 90% 이상이 열로 빠져나가는 반면, LED는 90% 이상이 빛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도 적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세계 각국은 앞다퉈 LED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술 종주국인 일본은 LED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명에 쓰이는 에너지를 2010년까지 20% 절감한다는 '21세기를 위한 빛 프로젝트'를 내놨다. 미국은 2020년까지 조명의 50%를 LED로 바꾼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라이팅 이니셔티브' 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정부도 2015년까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바꾸는 '1530프로젝트'를 내놓고 각종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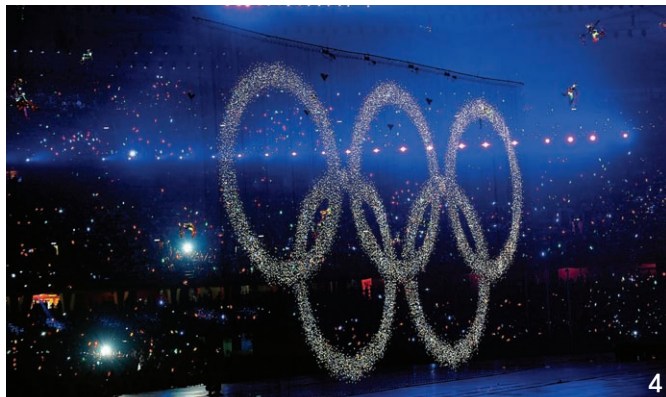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연계사업으로 부가가치 효과 탁월

세계의 기술 선진국들은 머지않아 이 차세대 산업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LED 전체 시장 규모는 45억 달러나 된다. 이 가운데 일본 기업 점유율이 36.7%로 압도적 1위다. 이어 미국(14.3%)과 독일(9.6%)이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대만(3.3%)과 한국(2.5%)도 추격 중이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한 까닭은 LED가 단순히 빛을 발하는 산업이 아니라, 절약한 전기를 탄소배출권과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이기 때문이다. 가령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 중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정에서 약 16%, 오피스빌딩에서 약 21%로 높다. 이들 조명을 LED로 바꾸면 소비자들은 남은 전기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팔 수 있어 추가적으로 부가 소득까지 노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1530프로젝트의 단계별 로드맵으로 LED 조명 보급,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급, LED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LED 조명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국민

화천군 제공

동아DB

동아DB

1 올해 1월 강원 화천군 산천어 축제에 등장한 회전리프트형 LED 전광판.
2 차량용 LED 방향지시등.
3 LED 가로등.
4 LED로 만든 2008 베이징올림픽 때의 오륜기.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이 부담 없이 LED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LED 조명의 개당 가격이 10만~3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할 엄두를 못 내는 현실을 감안해 부품 국산화로 제품 단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LED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비로 총 266억 원을 책정해 그동안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컸던 분야인 칩과 패키지, 방열 디자인, IC회로, 모듈 등 핵심 부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올해 7월까지 한국산업규격(KS)을 도입하고, 해당 조명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급 계획을 수립한 까닭은 전 세계 LED 조명 매출이 2005년 2억 73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8억 8040만 달러로 수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LED는 전기, 전자, 통신 분야 등 신호용에서부터 자동차 후면등, 피난 유도등,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은 더 큰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키움증권 LED 산업보고서는 LED 성장률이 2009년 14.9%, 2010년 15.7%로 상승하는 등 매년 두 자리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LED 조명은 성장 잠재력과 더불어 색상을 달리하는 경관조명 연출이 손쉬워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정보기술(IT)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어 이종(異種)산업 간 개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산업군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 세계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LED산업. 분명 우리 앞에도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하고 있다. 조명 단가가 높아 시장이 공공기관에 한정된 가운데 400개 업체가 난립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칩과 패키지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2900억 원을 출자해 LED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2월 17일 발표는 희망적이다. 다만 대기업의 참여가 LED 시장의 파이를 키워 온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LED 기술은 외국 선발업체 대비 75%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계는 녹색성장을 위해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선포하면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그린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LED 보급을 포함한 녹색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또 정부의 LED 조명 1530프로젝트와 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 국책사업으로 LED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LED 보급을 포함한 녹색국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의 LED 조명 1530프로젝트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조명 국책사업으로 LED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핵심 기술을 획득해나갈 것인지, 교육을 통해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어떻게 전개해나갈 것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전력소비를 줄여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LED를 선점한다면, 우리는 21세기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G

글 · 이상덕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부 기자

문화 유적 자연 지키고 IT와 바이오 산업 유치

전통의 도시 안동, 첨단의 옷 입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유명한 팜 주메이라가 있다. 현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도시다. 하지만 이 도시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인간의 능력이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세월, 바로 역사와 전통이다.

세계역사문화도시, 세계건강도시인 경북 안동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전통이 있다. 눈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전해지는 정신문화가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안동은 최첨단을 지향하는 e-스포츠, 정보기술(IT)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풍부한 농생명산업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인 바이오 생명도시로도 발돋움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역사도시 안동, 자연과 생태문화가 함께하는 생명도시 안동' 을 만나보자.

안동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안동 탈춤축제장과 강변 체육공원을 끼고 있는 낙동강변에는 정부의 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이곳에서 정부의 물길 살리기 사업이 첫 삽을 뜬 것. 사업비로 389억 원을 들일 낙동강 안동2지구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끝나면 용상동 법흥교~옥동 안동대교 4.07㎞에 생태하천(4.07㎞), 자전거도로(14.7㎞), 산책로(8.3㎞) 등이 조성된다.

경북도청 이전 확정… 성장에 날개 단 격

이와 별도로 안동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낙동강 70리 주변 13곳에 생태공원과 바이오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애솔숲문화공원 등 4곳은 이미 완료됐고, 검암 습지생태공원 등 7곳은 올해 말 준공된다.

또 낙동강 탈춤공원 앞에는 강물을 가둬 백조공원을 만든다. 인근에는 안동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있어 안동은 전통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이 결합한 낙동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으로 품격 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동시 이용재 건설도시국장은 "안동의 낙동강 둔치 체육공원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수변공원으로 조성됐다"며 "앞으로 70리 생태공원 조성과 물길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과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휴양레저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의 성장동력은 바이오산업과 문화산업이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문을 열고 94만 1000㎡ 규모의 경북 바이오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이곳에는 302억 원이 투

안동시 통산읍에 올 연말까지 조성될 경북 바이오 지방산업단지 조감도.
안동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아래).

입되는 바이오벤처플라자와 한약재배 연구소인 약용작물개발센터 등이 들어선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준공됐으며,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와 다큐영상원이 유치돼 올해 착공된다. 이런 영상문화 시설이 마무리되면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시대를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안동호 주변에는 골프장을 비롯해 관광호텔, 허브파크 등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체류형 복합휴양단지인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안동 곳곳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가옥과 종택, 사찰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5일 근무제와 웰빙(참살이)문화에 맞는 새로운 관광패턴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동은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등 명현들이 배출된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로 현대인들의 정신교육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는 안동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또 나라사랑의 산 정신교육장인 안동독립운동기념관과 국내 최대 전통문화체험 연수시설인 한국국

안동을 찾은 외국인들이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한국의 선비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학진흥원 내 국학문화회관, 유교박물관과 안동예절학교 등 숱한 정신교육장에는 민족의 정신과 자긍심을 배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회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안동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그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안동은 지난해 10월 예천과 함께 경북도청의 새로운 소재지로 확정됐다. 이로써 전통과 현대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안동은 미래 행정중심도시로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 6축 도로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산업의 확충 등으로 안동은 경북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고려의 탄생과 번성, 몰락의 역사를 함께했고 조선조 정신문화를 지탱하며 저력을 보여줬던 안동은 일제강점기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열사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곳이다. 찬란하고 고단했던 천년 역사를 간직한 안동은 이제 새로운 천년 역사를 열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임노직 수석연구원은 "안동지역 곳곳에는 불교문화, 유교문화를 꽃피웠던 명현 거유들의 정신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정신문화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안동지역만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G

글 · 엄재진 매일신문 사회2부 기자

Interview

김휘동 안동시장

"전통과 현대 조화된 명품도시 만들 터"

안동시는 바이오 · 문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 천년을 향한 백년의 주춧돌을 놓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휘동 안동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단지 내에 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와 약용작물 개발센터,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하고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조공원 조성 등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병행해 안동시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생태환경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또 상주~안동~영덕 동서 6축 고속도로와 안동~서후~평은 국도 5호선, 안동~길안 국도 35호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도 갖춘다.

김 시장은 "미래 천년을 내다보는 경북의 새로운 도읍지인 안동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고품격 명품 도시로서 경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 기능을 갖출 것"이라며 "도청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정책에서 밀려 낙후를 면치 못했던 안동이 자연과 문화, 생태와 생명,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새로운 천년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고운 모래해변과 평평한 갯바위지대가 공존하는 향만대해안.

총길이 198km 제주 올레길

눈길 잡는 해안 절경 발길 잡는 옛 흔적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제가 군사용으로 파놓은 일오동굴 안에서 바라본 산방산(왼쪽)과 형제섬.

'올레'는 원래 큰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리키는 제주 방언이다. 나와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나의 작은 집과 넓은 세상 사이를 잇는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올레는 근래 들어 제주도의 대표적인 걷기 여행 코스로 더 유명해졌다. (사)제주올레가 '숨은 길을 찾고, 끊어진 길을 잇고, 사라진 길을 되살리고, 없는 길을 만들어서' 12개 코스의 올레길을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초교~광치기해안의 1코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8㎞의 올레길이 개설됐다.

올레길에서는 모롱이를 돌 때마다 눈앞에 또 다른 풍광이 펼쳐져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연발하는 일이 잦다. 쪽빛바다가 넘실거리는 갯바위지대를 지나면 아담한 백사장이 나온다. 다음 모롱이를 지나면 솔숲이나 해안절경이 눈앞에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길이가 14~17㎞인 올레길의 1개 코스를 섭렵하는 데에는 5, 6시간쯤 소요된다. 하지만 그 시간은 큰 의미가 없다. 자신의 체력과 취향에 맞춰 마음 가는 대로 걸으면 그만이다. 12개 코스를 순서대로 걸을 필요도 없고, 1개의 코스를 다 걷지 않아도 된다. '간세다리(게으름뱅이)'가 되어 '놀멍 쉬멍(놀다가 쉬다가)' 걸으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인정을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올레꾼'이다. 대부분의 올레길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서 상쾌한 바다 풍광을 내내 누릴 수 있다. 게다가 급경사의 오르막길이나 삭막한 아스팔트 구간도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올레길에서는 누구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매섭게 불어대는 바람에서 가녀린 봄기운이 묻어나는 2월 중순의 어느 날, 제주 서남부지역의 해안선을 따라가는 올레길 제12코스를 섭렵했다. 구간 거리가 14km인 이 코스의 시점은 서귀포시 안덕면의 화순해수욕장이다. 철 지난 해수욕장은 한가롭기 그지없다. 발자국 하나 없는 백사장을 가로지르고, 작은 시내를 이룬 용천수 물길을 건너면 거친 갯바위지대에 들어선다. 길 없는 갯바위에도 파란색의 화살표시가 군데군데 칠해져 있다. 올레길의 갈리거나 흔적이 또렷하지 않은 지점에서는 돌, 전봇대, 길바닥 등에 표시된 파란 화살표나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만 찾으면 길을 쉽게 이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초행길인 올레꾼들도 길 잃을 염려는 없다.

올레길 12코스의 초반부는 풍정이 다채롭다. 쪽빛 바다가 넘실거리는 갯바위지대를 지나면 아담한 백사장과 나지막한 모래언덕을 만난다. 모래언덕을 넘으면 솔숲에 들어서고, 솔숲을 벗어나면 억새가 하늘거리는 풀밭 사이로 조붓한 길이 이어진다. 산방산(395m) 아래의 항만대해안에서는 고운 모래해변과 평평한 갯바위지대가 공존하는 진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올레길에서는 모롱이를 돌 때마다 눈앞에 또 다른 풍광이 펼쳐져 탄성을 연발하는 일이 잦다.

하멜 기념비·발자국 화석 등 볼거리 즐비

항만대해안 동쪽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안절경 중 하나인 용머리해안이 있다. 그리고 용머리해안과 산방산 사이의 언덕에는 산방연대가 복원돼 있다. 동쪽으로는 서귀포 앞바다의 범섬과 한라산 정상, 서쪽으로는 송악산과 마라도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전망이 탁월하다. 제주도 해안에 모두 38개소가 설치됐던 연대(煙臺)는 유사시에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감시하고 방어하던 초소이자 진지 역할을 했다. 이웃한 연대와는 낮에 연기를 피우거나 밤에 불빛을 밝혀서 연락을 취했다.

산방연대 아래에는 하멜기념비가 묵묵히 바다를 굽어보며 서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헨드리크 하멜(?~1692)과 동료 36명을 태운 상선 스페르웨르호가 바로 이 앞바다에서 좌초했다고 한다. 하멜을 포함한 8명의 선원들은 억류된 지 13년 만에 조선을 탈출해 고국으로 돌아갔고,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유럽에 널리 알리게 됐다. 현재 용머리해안의 산책로 입구에는 범선 모양의 하멜상선전시관이 들어서 있다. 하멜이 타고 온 스페르웨르호와 같은 형태의 범선을 80% 크기로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용머리해안과 사계포구 사이의 설큼바당

해변은 특이하게도 갈색 모래와 검은 모래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해변 맨 동쪽의 갯바위에는 한겨울에도 파릇파릇한 해조류가 융단처럼 뒤덮여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사계포구에서 송악산 아래의 마라도 유람선 선착장까지는 제주도 최고의 해안드라이브코스로 손꼽히는 '형제해안로'가 2.9km가량 이어진다. 길가 곳곳에 핀 유채꽃과 수선화가 봄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2001년 8월 형제해안로의 중간쯤에 형성된 갯바위지대에서는 대규모의 자연사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제주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 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64호)로 명명된 이 유적에서는 약 1만 5000년 전의 사람 발자국 화석 500여 개와 함께 새, 노루, 코끼리, 사슴 등의 동물 발자국 화석이 수천 점이나 확인됐다. 하지만 파도에 쓸리고 바람에 깎여 발견 당시처럼 뚜렷한 형태의 화석을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천연전망대인 송악산(182m) 정상에는 둘레 500m, 깊이 80여 m의 이중분화구가 형성돼 있다. 찻길에서 약 10여 분만 걸으면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분화구 위에 올라선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야에 거침이 없다. 동쪽으로는 산방산과 한라산, 서쪽으로는 모슬포항과 알뜨르비행장터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쪽 바다에는 '국토의 막내둥이' 마라도와 가파도가 떠 있고, 북쪽에는 드넓은 대정 들녘과 모슬봉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송악산 기슭의 해안절벽 아래에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군수품과 어뢰정을 숨겨두기 위해 파놓은 '일오동굴'이 있다. 모두 15개여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TV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가 된 뒤로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송악산을 넘어선 올레길은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대정 들녘을 가로지른다. 송악선 북쪽 상모리 일대의 대정 들녘은 일제강점기 당시 오무라해군항공대의 알뜨르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자살공격대인 가미카제 대원들도 이곳에서 비행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땅에 그토록 깊은 역사의 상흔(傷痕)이 있음을 알고 나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단 하루 여행길에서 제주를 재발견

송악산 서쪽 기슭의 솔숲과 말 방목장을 지나온 올레길은 코스 종점인 하모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삭막한 아스팔트도로와 인적 드문 바닷가의 흙길을 번갈아 거쳐간다. 겨울의 끝자락에 이른 대정 들녘에서는 감자 수확이 한창이었다. 초로의 한 농부는 몹시 바쁜 와중에도 "감자 농사가 잘됐느냐" "감자 시세는 괜찮으냐"는 등의 시시껄렁한 질문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친절하게 응대해줬다.

외지인들에게 배타적이고 경계심이 많다는 선입견은 여지없이 깨졌다. 수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자동차를 타고 바람처럼 내달리던 제주여행에서 좀체 맛보기 어려웠던 경험과 감동을 단 하루 동안의 올레길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제주도를 재발견한 여행'이었다. G

글 · 사진 양영훈 여행작가

물질을 마치고 형제해안로를 따라 귀가하는 해녀들.

여행 정보

코스 정보 (사)제주올레(064-739-0815) 홈페이지(www.jejuolle. org)에 들어가면 올레길의 각 코스별 교통편, 추천 맛집과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상세지도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코스 답사를 마친 올레꾼들이 올려놓은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숙박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 사이의 형제해안로 주변에는 송악리조트(064-794-6307), 바닷가펜션(064-794-0977), 바다의 향기(064-792-3331), 파도소리펜션(064-792-8222) 등의 펜션이 많다. 제주올레에서는 하모해수욕장 옆의 멜케르그빌(064-792-3636), 화순해수욕장 부근의 소라민박(064-794-1561)과 다이버하우스(064-792-3336)를 추천한다.

맛집 사계포구 부근의 진미식당(생선회, 도미국 · 064-794-3639), 남경미락(다금바리회 · 064-794-0055)은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횟집이다. 화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송도식당(보리비빔밥 · 064-794-9408)과 화순반점(중화요리 · 064-794-1157), 모슬포항의 산방식당(밀면 · 064-794-2165) 등은 제주올레의 추천 맛집 모슬포항의 부두식당(생선구이 · 064-794-1223)과 항구식당(물회 · 064-794-2254)도 소문난 맛집이다.

모슬포항 부두식당의 갈치구이와 멜국(멸치국).

가는길 서제주공항(시내버스)→한라병원 또는 노형로터리(평화로를 경유하는 화순행 시외버스)→화순사거리(하차 후 도보 이동)→화순해수욕장(제주 올레 12코스 시점)→사계포구→송악산→→하모해수욕장(12코스 종점)→모슬포(평화로를 경유하는 제주시내행 시외버스)→제주공항

일반인으로 구성된 정책기자단

"국민에겐 정책을, 정부엔 민심 알려요"

정부 정책을 국민의 편에 서서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정책기자단.

정책기자단(이하 기자단)과 만난 2월 17일은 동장군이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다. 이날 국가정보원으로 현장 취재를 다녀온 이들은 평소 가볼 수 없었던 국가기관을 다녀왔다는 사실에 시종일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학생 김민지(21) 씨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면 왠지 무섭고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반인들도 신청만 하면 가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다"며 "독자들이 실제로 가본 듯 느껴지도록 자세하게 탐방기를 쓰겠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이재만(28) 씨는 "저를 포함해 국가정보원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겠다"며 활짝 웃었다.

기자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의 편에 서서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국민기자단이다. 총 인원은 120명. 10대부터 50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주부까지 면면이 다양하다. 외국인도 3명 포함돼 있다. 출신지역 역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 말 그대로 '풀뿌리 정책알림이'다.

이날 만난 기자단은 김 씨와 이 씨 외에도 고등학교 2학년인 김윤주(18) 씨, 대학생 한희정(24) 씨,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박명수(38) 씨, 영상디자이너 박남수(32) 씨 등 6명. 이 가운데 박명수 씨와 박남수 씨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정책VJ다. 성별도 연령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국민기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은 한결같아 보였다.

일상에서 기사거리 찾아 생활정책과 연결

이들은 처음 기자단으로 선발됐을 때 '왠지 거창한 정책을 다뤄야만 제대로 된 정책 기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국민기자의 역할은 소소한 일상에서 필요한 정책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청소년기자로 활동하다 기자단으로까지 인연이 이어진 고등학생 김윤주 씨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정책을 알리고 싶다"며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말했다. 그의 첫 기사는 고향인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무료 임대 서비스. 공용 자전거 5000대를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김 씨는 직접 자전거를 빌려 타본 후 좋았던 점과 개선해야

1 국가정보원으로 현장 취재를 간 정책기자단.

2 취재 후 진지하게 토론의 자리를 갖고 있는 정책기자단.

3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정책기자마당 코너. 이곳에서 정책기자단의 기사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하면서 실제로 국민이 하고 싶은 말과 원하는 바를 오롯이 담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책 담당자에게 더 많은 숙제를 안겨주겠다”

할 점 등을 자세하게 기사에 담았다.

대학생 김민지 씨는 숭례문 복구 현장을 찾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복구 현장을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는 ‘정책기자’임을 내세워 복구 현장에 더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시민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는 “함께 줄을 서면서 국민들이 숭례문 복구에 대해 바라는 점을 생생하게 들었고, 이를 기사에 자세히 담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은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기사거리를 찾고, 이를 중앙 및 자치 정부의 생활정책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영문과 학생이면서도 영어회화엔 자신이 없다는 대학생 한희정 씨는 “꼭 외국에 나가야만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회화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라는 본인의 ‘갈증’에서 취재를 시작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영어체험학습관의 효과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재만 씨는 “취업문제가 심각한 20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고, 어린 아이를 둔 박남수 씨는 “우리나라 육아정책 및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박씨는 ‘아이와 함께하는 국립현대미술관 탐방’이라는 주제로 영상물을 만들었고,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한 할머니를 인터뷰해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아 올렸다. 두 영상물 모두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역할에만 안주하지는 않겠다”고 말한다. 즉,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바를 알리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 박명수 씨는 “국민의 시각으로 취재하면서 실제로 국민이 하고 싶은 말과 원하는 바를 오롯이 담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에게 더 많은 숙제를 안겨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겐 정책을, 정부에는 민심을 알리겠다”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들의 활약이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창을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 G

글 · 이지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정책기자단

지난해 8월 30명 규모로 시작한 정책기자단 1기는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올해 1월 선발된 기자단 2기는 120명으로 늘었고, 동영상을 다루는 정책VJ도 추가됐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 100명 선발에 5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기자단이 되기 위한 경쟁률은 치열했다. 선발 시험은 ‘2009년 희망,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기사 및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자단에겐 원고료도 주어진다. 기사는 1건당 5만 원, 동영상은 1건당 10만 원이다. 취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쓰고 만든 기사와 동영상은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 kr)의 메인 화면 오른쪽 위의 ‘정책기자마당’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도 제휴하고 있어 이들 사이트에서도 기사와 동영상이 제공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운영과 02-3704-9844.

신데렐라 몸짓에 취할까 거장들 화폭에 빠질까

신데렐라

일시 3월 20일(금)~24일(화) 오후 7시 30분. 단 21일은 오후 3시, 7시 30분 2회 공연. 22일은 오후 3시 1회 공연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7-6181

국립발레단과 천재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가 만났다. '신데렐라'는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며, 안무가 마이요만의 독특하고 신선한 비틀기가 중심이 된 작품. 캐릭터와 스토리라인 역시 기존작과 완전히 다르다. 신데렐라 친부와 친모의 사랑, 친부를 향한 계모의 비뚤어진 사랑 등 다양한 이야기 구조가 나타난다. 캐릭터 간의 내면 갈등이 치밀하게 묘사된 것도 이번 공연의 특징. 네덜란드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는 김지영 씨가 신데렐라로,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의 주역 김주원 씨가 신데렐라의 친모로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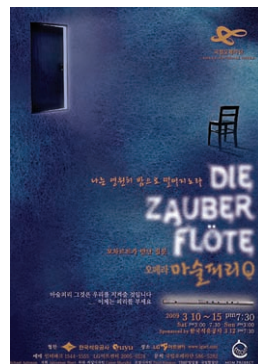
코리아 환타지

일시 3월 18일(수)~21일(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2280-4283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춤과 창작춤을 모아 재구성한 공연으로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다. 학춤, 부채춤, 진도 강강술래, 장고춤, 살풀이 등 한국의 전통춤을 현대적 감각으로 무대화하고, '사랑가' '신라의 기상' '춘설' '기도' 등 창작품 속 주목을 받았던 춤들을 함께 모았다. 그동안 세계 70여 나라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열띤 반응과 박수를 받았다. '정중동'(靜中動)과 '동중정'(動中靜)이 어우러지고 흥과 한, 해학과 솔직함이 살아있는 '몸짓'을 느낄 수 있다.

마술피리

일시 3월 10일(화)~15(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586-5282

'마술피리'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서민적이고 세속적이며, 항상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겪어야 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 이번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는 원작의 느낌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따뜻함을 더했다. 또 화려한 무대와 폭넓은 음악이 감동의 깊이를 더한다. 주인공인 '밤의 여왕'으로는 소프라노 카타르지나 돈달스카와 김성혜가 더블 캐스팅됐다. 지휘자는 요하네스 슈테르트, 연출은 마이크 애시맨.

한국근대미술걸작전, 근대를 묻다

일시 3월 22일(일)까지
장소 덕수궁미술관
문의 02-757-1800 www.koreamodern.com

20세기 초 격변의 역사를 당시 화가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번 전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도 같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천경자, 오지호 등 한국미술을 이끌어온 거장 105명의 작품 232점을 통해서 근대인들의 삶과 꿈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당시 화가들이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고, 이러한 작품들이 한국 미술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엿볼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 단, 덕수궁 입장료는 별도다.

글 · 이지은 기자

박수근 작품 '아기 업은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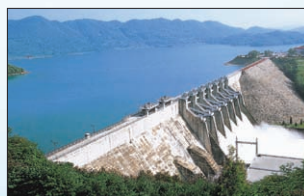
생명水를 선물하세요!

물은 보내자! 사랑을 나누자!

고통받는 이웃에게 물을 선물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가뭄피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향에 계신 내 가족, 내 이웃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당장 나부터 물절약을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가뭄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가뭄극복으로 깨끗한 자연을 유지해야 합니다.

21세기에는 물의 가치가 국가경쟁력입니다.
수자원 확보로 물이 풍부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및 공업, 농업 용수가 부족합니다.
유수지 등을 개발하여 물부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좁은 우물 안이 아닙니다.
보이십니까?
드넓은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방송·통신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